朝鮮日報 夕刊 二十六日(木)

伊國軍進軍開始

이미國境線을突破코 에國의아도와를經由

紅海入口防備强化

【지부티二十五日發電通】當地에 達한 情報에 依하면 伊領에리트리아에 待機中이든 伊太利軍은 命令一下에 進軍을 開始하야 國境線을 突破하고 에디오피아의 아도와를 經由하야 다시 南으로 進軍하고잇다 그리고 友軍을 側面에서 援護하기爲하야 맛사와로부터 上陸한 黑샤츠師團은 이미 에리트리아의 라날國境附近에서 展開를 終了하엿다 그리고 伊太利軍은 紅海의 英國領페림島에 面한 에리트리아의 最南端에 要塞를 構築하고 紅海入口를 扼하고잇다 右는 英國軍에 備하여잇다고 傳한다

伊리비아出動軍에 突然待機命令

【羅馬二十五日發聯合】伊太利政府는 二十六日 나폴리를 出發하야 리비아로 出動할 豫定인 國軍一萬에 對하야 二十五日 突然 豫定變更을 命하엿다 右軍隊는 다음의 命令이 잇슬때까지 나폴리에 滯在하기로 되엿다 右豫定變更에 對하야 政府當局은 二十五日 左와如히 言明하엿다

英國外相과 뭇솔리니首相과의 相互保障으로 伊太利政府는 리비아殖民地의 國防을 强化할 必要를 認定케되엿다 리비아派遣軍의 出動을 中止한것은 全然 英伊兩國關係가 好轉된結果이다 但 東아프리카植民地에 對하여 伊太利政府는 依然旣定方針대로 邁進할 것으로 英國政府와의 保障으로 何等 拘束을 밧지 안코잇다

에國前衛部隊의 卅키로撤退斷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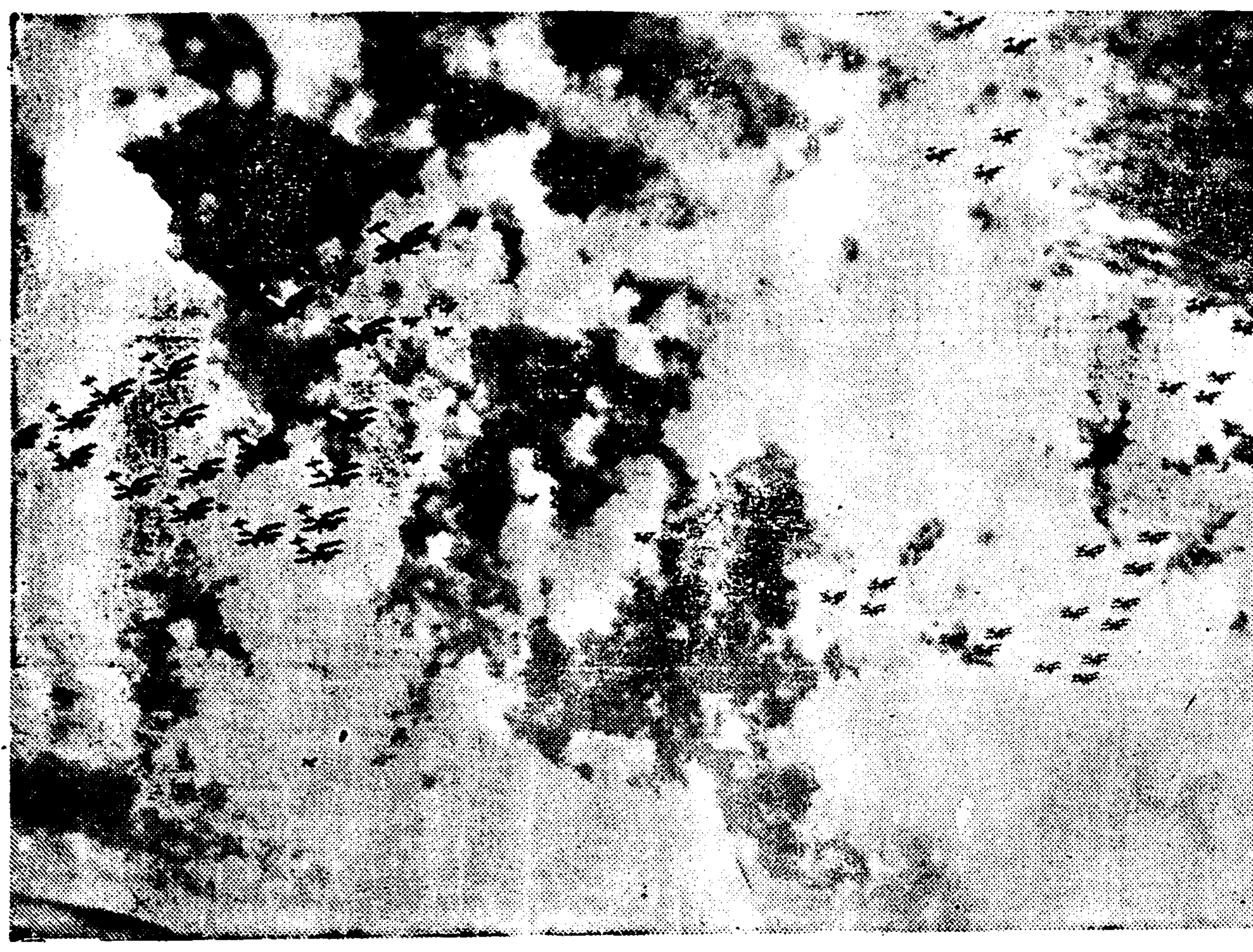
不意의事態發生을防止코저 理事會에監視員派遣을要請

【아디스아베바二十五日發聯合】皇帝하일레·셀라시에一世는 前線派遣部隊의 國境線으로부터 三十粁撤退를 斷行하는同時에 二十五日 聯盟理事會에 通電하야 右事實을 報告하고 또今後事態를 監視키爲하야 理事會가 옵서버를 派遣하도록 要請하엿다 皇帝의 親電內容은 左와如하다

國境線上의 伊軍의不斷의 挑勢에 鑑하야 不慮의事態가 發生할것을 防止하기爲하야 余는 國境線의 國軍에 對하야 一齊히 三十粁의 撤退를 命하엿다 그리고 今後紛爭이 發生될 境遇 責任所在를 闡明하기爲하야 現在에 옵서버를 派遣하도록 理事會에서 考慮하기를 要請한다

英伊會談內容公表

【羅馬二十五日發聯合】新聞宣傳省은 二十三日 뭇솔리니首相과 드라몬드英大使와의 會見의 重要性에 鑑하야 會見顚末에 關하야 特히 二十五日 左와如히 簡潔한 콤뮤니케를 發表하엿다 뭇솔리니首相은 二十三日 羅馬駐剳英國大使 드라몬드氏의 訪問을 바덧다 드라몬드氏는 右會見에 際하야 英國外相호어氏로부터 뭇솔리니首相에게 보낸 書翰을 手交하엿는데 右書翰에잇서서 호어外相은 伊太利의古友로 英伊兩國間에 存在한 如何한 意見相違라도 兩國間에서 處理解消할것을 要請하엿다



◇大演習마치고 산디에고에 도라온 米海軍機百餘機의 大分列式

에調査團派遣要請을 理事會拒絶

伊太利를刺戟한다고

【쥬네브二十五日發聯合】에디오피아皇帝하일레셀라시에 一世로부터 中立調査團派遣要請에 接하야 理事會首腦部는 二十五日夜 緊急協議를한바 右要請을 拒否키로 意見이 一致되얏다 따라서 二十六日의 會議에서 調査團派遣案에는 不能할豫定이다 拒否理由는 左와如하다

一、目下情勢에서 中立國調査團을 派遣함은 突然히 伊太利政府를 刺戟하야 紛爭兩當事國의 緊迫關係를 激化함에 不過하다

一、에디오피아國은 都邑이 遠한데다 또交通도 極히 不便한 狀態에 잇서 中立國調査團은 여러가지 困難에 直面할터로 到底히 所期效果를볼수업다

和協折衝餘地 英伊間明白히存在

【倫敦二十五日發電通】二十四日英國閣議後 有力側에서 闡知하건대 뭇솔리니首相은 호어英外相의 書翰에 對하야 드라몬드英大使를 通하야 자못 友誼的인 人事를 보내고 英外相이 英國의 現在 에디오피아問題에 關한 態度에 아모런 對伊的敵意도 包含되지아니하다는것을 說明한것은 極히 欣快히 역인다 라는 旨를 述하엿다고하는데 右는 英艦隊의 地中海集結이 對伊攻擊作戰的 意圖에 基하지 아니한것을 强調한것을 指摘한것이라는데 호어英外相은 二十四日의 閣議에서 이 人事도 披露하고 英伊間에는 伊에紛爭和協商議의 餘地가 아직 明白히 存在하다 라는 旨를 指摘하여왓다는데 時局에 對한 往日의 焦點은 規約條文을 適用하는 聯盟理事會의 推移보다도 오히려 英伊間의 折衝에 期待가 하고잇다

英佛代表會見

聯盟規約十五條四項에基한 處理에意見一致

【쥬네브二十五日發電通】二十六日에 開會할理事會를 압두고 二十五日午前 이든 英國聯盟相과 라발佛首相과 會見하고 무엇을 協議한바 잇섯는데 聞知한바에 依하면 右會談에잇서서 兩代表는 二十六日 理事會에 對하야 伊、에問題를 聯盟規約十五條四項으로써 處理하기로 意見一致되엿다한다

東阿遠征軍又復 千二百名出帆

【나폴리二十五日發電通】伊太利軍의 東阿出征은 아직도 繼續되여 二十五日에는 軍用船伊太利號는 將校若干名과 下士及兵一千二百名 其他軍需品을 滿載하고 나폴리를 出帆하야 戰雲濃厚한 東阿植民地로 向하엿다

廿六日理事會의 議事方針確定

三項에依한和協努力失敗로 十五條四項의手續進行

【쥬네브廿五日發電通】五國委員會議長마다리아가氏는 廿五日夜 아브놀事務總長과 協議를 遂하야 廿六日 午前十時半부터 開會할 理事會의 議事方針을 確定하엿는데 開知한바에依하면 마다리아가氏는 英佛兩代表와 私的으로 懇談하고 兩國의 意向을 明確히한結果 理事會本會議는 容赦업시 規約十五條四項의 手續을 進行하기로하고 事務總長도 英佛의諒解가잇는限 이것을選擇하려하엿슴으로 右方針下에 二十六日 理事會를 開하기로 決定하엿다 그리고 그議事는 左와如히 進行할터이다

一、公開會議를開하고 五國委員會議長으로부터 正式報告를受領함

一、理事會議長은 이것으로써 十五條三項의 手續이 終了되고 그리고 紛爭도 解決되지못한것이라고 認定하고 第四項에 依하야 勸告를 含한 報告作成으로 올릴것을 議場에 諮함

一、右提請에 議場이 異議업슬境遇에는 直時 報告書 起草委員會를 議場에 提議하야 紛爭當事國인 伊太利를 除한 理事會全員으로써 此를作成케한다

聯盟理事會

【쥬네브二十六日發聯合】伊太利政府의 强硬態度로 五人委員會는 和協工作에 失敗되여 一切의 處理手續을 移管하기로되엿다 聯盟理事會는 異常한 緊張裡에 二十六日午前十時半(日本時間午後六時半)부터 聯盟事務局會議室에서 開會키로 되엿다 前夜來의 英國代表이든無任所相 伊國代表라발首相을 中心으로 各國代表의 往來가 頻繁하야 理事會의 重大性을 豫想케한다

伊太利는聯盟을 痛擊코저畫策中

에國委任統治提議乎

【羅馬二十六日發電通】聯盟理事會가 五國委員會의 和協工作의 失敗로 되돌이여 第十五條四項에 依하야 勸告案을 含한 報告作成의 手續에 着手하게되엿다는 報道에 接한 伊太利側은 對英佛直接交涉의 展開를 企圖하고잇는 同時에 알로이지代表에게 새로운 積極的 聯盟對抗策을 傳授하야 聯盟規約을 試하려고 하고 잇는模樣이다 그리고 뭇솔리니首相의 聯盟對抗秘策中에는 極히 周到한 作戰이 準備되여 잇는것이라고 觀測되는바 有力한 一案으로는 聯盟規約第二十二條의 委任統治規定을 改訂하야 文明程度가 나즌 野蠻國인 에디오피아와 對等한 立場에서 協議하는것이 不肖이라는것을 指摘하고 에디오피아를 伊太利의 委任統治下에 둘수잇는方向으로 規約을 改訂하라고 提議하야 目下開會中인 聯盟總會에 此를 携帶하고 臨하야 理事會를 牽制하기를 企圖하려는 計劃이다 그 提出時機는 不明하나 英佛側이 事前又는 事後를 通하야 極力 此를 阻止하려고 企圖할것은 明白하리라고 豫想되다

聯盟理事會에서 特別委員任命 報告書起草着手

【쥬네브二十五日發聯合】聯盟理事會는 마침내 二十六日 午前會議에서 規約第十五條第四項에 基하야 報告書起草에 着手하기로되엿다 佛國代表 라발首相은 國務多忙함으로 二十八日 쥬네브出發하야 巴里로歸還할 豫定인데 右委員會에 參加하지안코 聯盟局長마시그리氏가 代理하리라고 觀測되다 英國代表로서는 이든無任所相이 參加할터이다

皇太子殿下 葉山御用邸行啓御延期

【東京電話聯合】皇太子殿下께서는 二十六日 葉山御用邸에 行啓하압실터이든바 至極御輕微하신 御感氣로 行啓를 御延期하압신다고 同日午前九時二十分 發表하압시엇다

一木樞相退職안흐면 機關說根本解決不能

이에成功치못하면現內閣倒壞는未免 軍部側의强硬態度로

【東京電話電通】機關說問題는 今春以來 軍部의 强硬態度로 機關說論者의 根源 即 一木樞相 金森法制局長官의 排擊에까지 進展되엿는데 이問題에 對하야 岡田首相은 非常히 憂慮하고 지난三月 美濃部博士의 機關說問題가 一部世論을 紛糾케하든 當時에 政府는 一木樞相彈劾의 右翼派의 運動을 彈壓하고 그表面化를 極力避하엿든것이다 그리고 時勢는마츰내 一木樞相等의 進退를 閣議에서까지 論議하게 되엿다 이問題에對하여는 重臣間에서도 甚히 憂慮하고 牧野內府를 中心으로 昨今 자조 對策을 考究하고 잇는模樣이다 그러고 二十五日閣議에서 陸海兩相은 閣議裡에 一木樞相等을 彈劾하고 岡田首相도 이에 肯定的態度를 表示한것도 疑心할 餘地가업다 그러나 岡田首相이 一木樞相等을 引退케할 工作에對하야 成功할 確信이잇는지 업는지는 甚히 疑問인바 마츰내 岡田內閣이 犧牲되지나 안흘가 注目된다 重臣方面의 觀測에依하면 이러한境遇에 一木樞相을 引退식히지못하고 岡田內閣이 倒壞되고 그後如何한 內閣이 成立되드라도 一木樞相이 在職하는限 機關說問題는 根本的으로 解決되지못할것이다 따라서 차라리 岡田內閣으로 하여금 問題를 根本的으로 解決식히기 爲하야 一木樞相을 圓滿히 退케할 希望을가지고잇는 模樣인데 岡田首相도 이重臣의意圖를 依據하고 이問題의解決 即 一木樞相의 自發的引退에 期待를갓고잇는 模樣이다

司法權의威信上 軍部大臣과一戰

小原法相의悲壯한覺悟로 今後內面的으로尖銳化

【東京電話電通】重大危機를 傳하든 二十五日의 閣議는 共同戰線을 베픈 大角、川島軍部兩相의 强硬한 主張에 對하야 岡田首相이 妥協的態度를 取한바 小原法相을 爲始하야 全閣僚도 此를 諒解하고 別項과如히 決定하게되엿슴으로 겨우 閣內의對立은 免하게되엿다 그러나 이結果 美濃部氏의 機關說問題에 對하야는 小原法相은 마친내 孤立的立場에 서게되엿다 特히 岡田首相을 爲始하야 全閣僚는 今後 機關說撲滅과 國體明徵에 對하야는 陸海兩相과 全然同一한步調를 取하야 軍部의 要望하는바는 全面的으로 此를 實行할 것을 公約하게되엿다 即 陸海兩相과 岡田首相과의 協調에依하야 閣內의 不統一은 免하엿스나 今後事態에 首相은 萬全을 期하려하는 大局的見地에서 게되엿는데 事態는 도리혀 內面的으로 尖銳化하야 今後軍部側에서 提出할 强硬處置의 要求에 依하야 首相自身이 自繩自縛케된 窮地에 陷入할 憂慮가 極히 濃厚하게 되엿다 그리고 法相은 이미 軍部大臣과의 一戰을 覺悟하고 司法權의 威信을 保全하려고 함으로 法相이 取할處置에 對하야 아직도 軍部大臣이 不滿하는 態度를 取하면 法相으로서는 全責任을 負하고 辭任할수밧게업는 바 事態는 益益紛糾되야 政局 今後의 動向은 자못注目되여잇다

機關說問題로 政局不安增大

【東京電話聯合】機關說의 處置에關하여는 二十五日 閣議에서 川島陸相 大角海相의 兩軍部大臣으로부터 三項目에 亘한 希望을 述한바 이에對하야 各閣僚도 異議업시 此를決定하고 政府는 이것으로써 如何든 問題는 解決되엿것이라하고잇는데 元來 國體明徵問題로써 機關說을 排擊하고잇든 眞意는 一個美濃部氏를 問題삼고 잇는것이아니라 機關說이 남보다고하면 이에關聯하야 一木樞密院議長 金森法制局長官의 進退問題에도 波及식힐수잇다는데잇다 前議會에 이問題가 論議되게되것은 政府는 機關說著書의 發禁處分 國體明徵聲明 美濃部博士의 司法處分問題에잇서서 一步式 退却을 不得已하게되여 今日까지의 經過를 詳細히 檢討할時는 그것은 準備工作에 不外하고 一木金森兩氏의 進退問題가 最後의目標라고보는것이 正當한 觀察이다 이問題에關하여는 政府도 相當히 防禦工作에 努力하리라고 생각되다 그리고 一方에는 機關說問題를 倒閣의工具로 使用하고잇는 一派 (政友會强硬 貴族院의 一派 各愛國右翼團體等)는 政府가 無定見 無方針한것을 內心 깁버하고 最後의 猛擊을加하야 대번에 倒閣으로 邁進할 氣勢를 表示하고잇는데 더욱 二十五日의 閣議決定으로서 軍部의 强硬組가 滿足하리라고 생각되지안흠으로 事態는 今後 더욱 惡化의度를 加하야 政局은 益益 不安混迷하리라고 觀測되다

獨、東洋經濟視察團 十一月中朝鮮視察

獨逸東洋經濟視察團 獨逸無任所公使키프氏、前駐日商務書記官크놀氏以下 獨逸國內에서 對東洋貿易有力實業家를 網羅하야 十月五日發 카나다를 經由하야 同月三十日 橫濱着 엠프레스·오브·러시아號로 來日하야 日本內地를 二週間豫定으로 視察한後 十一月中旬 朝鮮 滿洲를 視察할터인데 獨逸東洋貿易 特히 日、獨兩貿易關係에 對하야 現地에서 直接折衝을 行하리라고 觀測되다

大久保入江兩氏의 朝鮮出張發令

【東京電話聯合】首相代理로 朝鮮施政記念式에 參列할 大久保秘書官 拓相代理入江次官에 對하야 二十六日 左와如한 辭令이잇섯다

內閣總理大臣秘書官 大久保利隆
拓務次官 入江 海平
朝鮮出張을命함(各通)

全朝鮮刑務所長會議

今年度 全朝鮮刑務所長會議는 明二十七日부터 三十日까지 每日 午前八時부터 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增永法務局長統裁下에 全朝鮮二十六刑務所長 其他關係官出席으로 開催하기로 되엿다

人事·集會

▲李恒九男爵(李王職次官) 東京出張中이든바 今二十六日午後三時二十分歸任

▲井上遞信局長 事務視察로 釜山統營及大邱地方에 出張하얏든바 二十六日午後十時三十五分 京城驛着列車로歸任

八面鋒

◇聯盟은 집어치우고 英國과 直接부러본 伊太利、아모리해도 싸우지안코는 직성이 풀리지 아니하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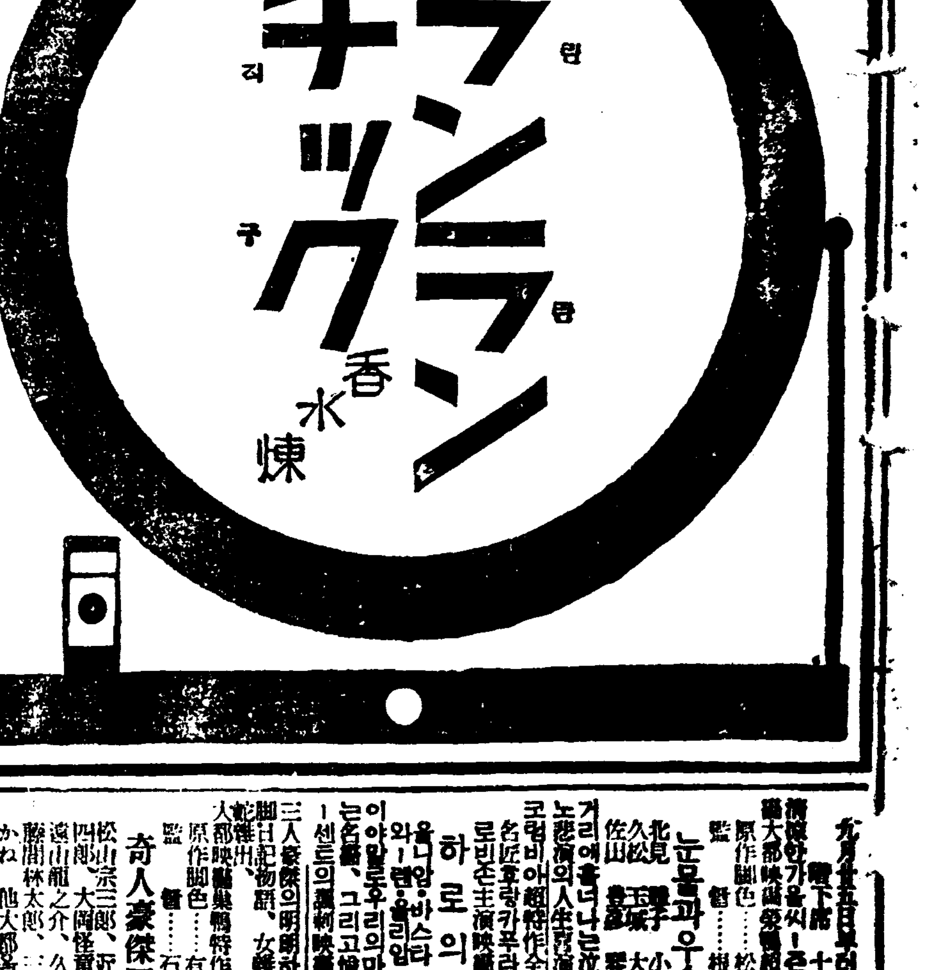
◇畢竟엔 進軍開始! 國境에서 港口에서 저벅저벅하는 進軍의 발소리가 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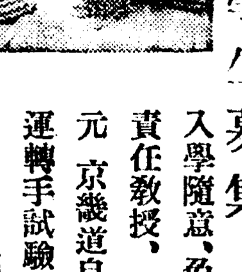
◇單獨으로라도 制裁하겟다는 英國이 한便에 待機하고 잇는 以上、

◇東阿의陸上에서보다 地中海의 水上에서 먼저 불집이 나지나아니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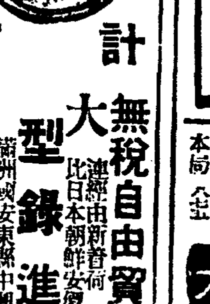
◇合同通信記者의 觀察도 「戰爭」二字로서 다할뿐이라 하엿스니, 戰爭은 나고야말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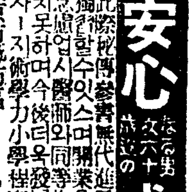
◇勝敗利鈍은 엇지되얏든지 屍山血河의 끔찍한光景이 想像만해도 몸서리난다。



男女學生募集
入學隨意、免許證獲得
責任教授、就職紹介、
元 京畿道自動車運轉手試驗官主任
學校長 溝見良

東洋自動車學校
入學資格 尋常小學校又는普通學校卒業程度
自動車運轉手가되라면
(京城西大門町)
東洋自動車學校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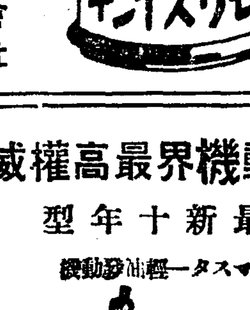
腫氣 靑山膏에용 히벅고

時計 寶石

無稅自由貿易港 大連經由新着荷 比日本朝鮮安價提供可能함
大型錄進呈
滿洲國安東縣中興街四〇
滿蒙特產物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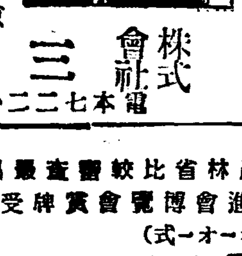
◇一生安心 求職者募集

東京市麻布區竹谷町一番地
日本鍼灸專門學院

永登浦朝鮮染色整理工場職工募集
男工 百名 女工 五十名
右十五歲以上三十歲까지 普通學校를卒業한者로서 品行方正한者 希望者는 寫眞、戶籍抄本、履歷書를 左記에 郵送하고 十月二日부터 六日까지 每日午後三時로 七時사이에 本人來談할事 但女工은永登浦近處在住者에限함
京城府武橋町四十番地 募集事務所 李 起 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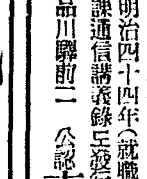
新進歌姬佳作盤 人氣衝天!
울지안을래요 일허진첫사랑
(四〇六三七) 金玉仙

品質優良·價格低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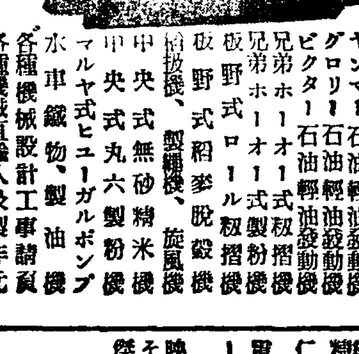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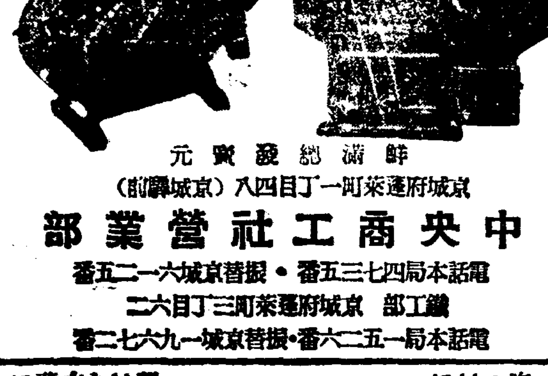
モリスインキ本舖 丸金株式會社 東京·京城

유모


高級羅紗 附屬品 一式
京城永樂町二丁目
株式會社 三公商會
電本七二二 振替京城一三八

◎失職은技術家에업다

◎本校는實地로有用한技術家를養成할目的、學力年齡을不問하고臨時로入學許可합니다이 一技를배워서獨立的生活의安定을得하라
◎本科三個月卒業
◎創立明治四十四年(就職紹介、學則送付)
◎校外課通信講義錄도發行함
◎東京品川驛前 公認 東京寫眞學校

추탕은 兄弟酒店
京城府東大門外崇仁洞一九九
支店은 永導寺入口

發動機界最高權威
最新十年型


共進會博覽會賞牌受領二十數回
(農林省比較審查最高金牌受領)
農村救濟를爲하야 奉仕的 特別廉價提供優良한 機械를 購入하시라면 먼저 弊社로御照會 即時型錄 送呈代理店募集합니다
(鮮滿總發賣)
中央商工社營業部
京城府蓬萊町一丁目四八(京城驛前)

二十六日より大封切
映畫の秋!!傑作名畫洪水の秋! その一しほ絢爛たる中を其の傑作を掌握しこの壯なる大行……上映順……
一、下加茂特作サウンド版
原作脚色監督 星哲六 撮影 石村 主演 結城一朗、大內
△猪太郎時雨
二、アリート社超特作日本版
監督 チエスター·フランクリン 主演 モンテ·ブルー
△鐵火の巨人
三、蒲田超特作サウンド版
原作 川端康成 脚色 柳井隆雄 監督 佐佐木康 主演 本鄕秀雄、水島光代
△舞姬の曆
浪花館

九月廿日부터
RKO社二大名畫超豪版
每日三回 正午十二時、午後三時 午後七時半
背叛한입술
紅雀 全十二卷
仁寺洞 朝鮮劇場

奇人豪傑三人旅客
눈물과우숨의天國
하로의淑女
櫻井町 大正館

鄭泰玉等四十三名 "朝鮮共靑"大公判
未決呻吟三個年에 一名死亡
明日咸興法院서開廷

【咸興】 소화팔년오월함남경찰부와함흥 홍원(洪原)량경찰서가 중심이되고 경성서대문 인천(仁川) 부산(釜山) 평양(平壤)등의각경찰서가 호응하여 전조선적으로무려 이백여명의 다수청년을대량검거하여 함흥서에 류치하고 취조하다가 작년십월중에 함흥법원검사국에 송치하얏든 세칭조선공산청년동맹(朝鮮共産靑年同盟) 사건의 정태옥(鄭泰玉)등이십명과 아직그들을 송치하기도전에 또다시 그재건조직에 탈로되여 소화구년 사월부터함주군과 함흥부내에서 청년백여명을 함흥서에서 집중적으로 검거를하여 류치하고 취조한후 금년사월 하순김재용(金在瑢) 등 이십사명을 역시 함흥법원 검사국에 송치한 조선공산청년동맹재건(朝鮮共靑同盟再建)사건은 동법원에 송치된후에 벌서 일년반이 넘도록 예심에 걸리여 있다가 지난 륙월팔일에 예심이 종결되고 사십사명모다 유죄로결정되여 치안유지법위반 출판법위반 등 여섯가지의 복잡한죄명하에 동법원공판에 회부되엿든바 그간 수차공판기일이 연기되다가 드디여 이십칠일오전아홉시부터 제일회 공판이 함흥법원대법정에서 미전재판장(米田裁判長)주심 서야진(西野眞)、진량판사배석 대정(大町)검사의 립회와 유태설(劉泰卨)、한격만(韓格晩) 채규묵(蔡奎默)양변호사의 관련으로 개정하기로 되엿다 사건이 원래 국제공산청년회에 근거를두고 전조선에서 가장 급진적인 공산주의의 정예분자를 망라하여 조선공산청년동맹을 재건하려고 활동하엿든 것이며 이사건중에는 국제공청동맹대회에 조선대표격으로 출석하엿든 사상운동의 거물이 들어 잇스며 또한 사건의 중요 인물 강목구(姜穆求)는 함흥서에 검거되여 잇슬때 감방에서 교묘히 외부와 련락을취하며 후계조직을 지도획립하여오다가 전후이차식이나 류치장에서 도주하여 아직까지 종적이 묘연한등 조선에 잇서서 공산주의운동선상에 보기드문 조직적 대사건인만큼 피고중 김재용(金在瑢)은 예심종결후에 신병이독으로 보석되엿다가 사망하엿다고한다

함주군(咸州郡) 일대를 무대로하야 각기 조직망을 펴게되엿는데 강우선은 공장지대에 손을빼치어 삼명 혹은 오명식「그룹」을두어 그것을 단위로 공산청년동맹의 대조직을 위한 토대로 하는동시에 평양에는 사범학교에 독서회를 두게되야 동지획득과 활동분자 양성에힘을썻다 그리고 강목구는 함흥과 홍남의공장지대에 공장반을 설치하는일방으로 함주군일대 농촌에는농촌반 십여개소와 공산청년반등을두고 한편으로는 「그리지로」「농민신문」이란 등 색물을 발간하여 지도에힘썻다

莫府國際黨指示로 朝鮮內組織開始
姜穆求、徐炳河의兩名이歸國 各職場에潛入活動

이제예심종결서에 나타난 각피고들의 활동한내용을 소개하면 국제공산청년동맹(國際共産靑年同盟)(속칭『낌』)은『공민테른』의 한 활동기관으로서『모스크바』에 그본부를두고 세계각국에 그활동을 위하여 각히 공산청년동맹(共靑同盟)의 지도와 통제를하는곳으로 일천구백삼십년팔월『모스크바』에서 전세계 개국대표의 회합으로 국제공청동맹 전체대회가 열리게되엿다 그리하야 조선에서도 동대회에 출석할 대표적인물을 선출하라는 동회의지령으로 동대회 동양부에서 리상희(李相熙)를 조선내지에 파견하게되엿다 조선내에 잠입한 리상희는 함남에서 방치규(方致規)의소개로 경성에서 홍원출생 강목구(姜穆求)와 또 서병하(徐炳河)의소개로 정태옥(鄭泰玉)을맛나서 그들에게 공산대회입학과 전국대회에 참석할임무를맛겨 동년 십월하순 청진(淸津)을거처 포염 해삼위(海蔘威)를 거처『모스크바』에 도착하엿는데 동대회에서는 조선내에는 아직공청이 업슴으로 대표는 취소하기로 하고 방청만 하게되엿고 인하여『낌』동양부 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선 공산청년운동에 관한 토의를하고 동양부 책임자『소시에프』의 권유로 조선공산 청년운동의 지도방침을 결정한 공청정형『테제』외준측하에 전조선적으로 농촌 공장 광산 철도 부두등 각직장에서 좌익무산청년을 획득하여 그중삼명내지 오명으로써 공산청년동맹 재건크럽을 조직하고 그조직의 발전에 따라군시(郡市)위원회 도(道)위원회 중앙조직의 각게단을거처 조선공산청년동맹의 조직을완성하라는 지령을『낌』상임부에서 밧고 동년 일월 조선에 잠입후강목구는함남, 정태옥은 경성으로 각책임구역을 분담하여 서로제휴하야 활동을개시하엿다

都市와農村에 細胞網配置
機關紙까지도發行

비밀리에 모스크바에서돌아온정태옥 경성、인천(仁川) 부산(釜山) 평양(平壤) 동지를 무대로하고 강목구는 함흥 홍남(興南)로 중

이상과가티 맹렬한활동을 하든중 소화팔년팔월중에 전조선적으로 일제검거를보게 되자 공청조직은 일시붕궤상태에 이르럿슴으로 당시교묘히피신하여다니든 최정덕(崔庭德)은이를 재건코저공청운동의 존재를 널리 일반동지에게 알니기위하여 십일월칠일 로서아혁명기념일에 함흥부내에『포스타』를첩부하려고 하엿스나 실행에이르지못하고 동년십이월 신문배달부인 최원조(崔元祚)를 획득하여 신문배달부를 규합하야공청반(共靑班)을 조직식히게하고다시 윤종청(尹鍾淸)과회합하여동인의 직장인 덕본철공소(德本鐵工所)내에공청반을 조직지도 하엿다 이리하든중에 함흥경찰서에 검거되엿든 강목구(姜穆求)의 밀서를가지고 출감한 김재용(金在瑢)과회합하고 강목구의 재건조직방침지령에 의하여 공청재건운동을 하기로하며 구년이월이십팔일 긔관지 공산청년을발간하고 동지획득에 주력하다가 동월이십일 함주군 정화릉(定和陵)에서 김히경(金熙敬) 윤종청(尹鍾淸) 차우영수(車又榮秀)의 삼명으로 조선공청 재건 함흥삼인조(咸興三人組)를 조직하고 각히 부서로 결정한후에 공장세포조직으로 덕본철공소 공장세포(德本鐵工所工場細胞)와 신문배달부로된 출판부세포(出版部細胞)로 조직확립하엿다 이러는한편 구년이월 하순부터 동륙월까지 긔관지 공산청년(共産靑年)은 삼회식이나 발행하엿고『메ㅣ데』에는 격문전여매를 등사하여 함흥 홍남 함주군일음에 산포하엿다 그러고 농촌부는한효삼(韓孝三)이 피검된이후 년십이월하순 주서면 풍호리(州西面豊湖里) 송림 중에서 전긔함주군위원회를 개최하고 한효삼(韓孝三)의 후계로한홍익(韓興益)이 책임자로 선임되어농민신문(農民新聞)의 후신으로투쟁신문(鬪爭新聞)이라는 제호로변경하여 동긔관지로한것 리근수(李根秀)로 출판책임자로활것을결의하고 구년일월이십일경투쟁신문 제일호를 발행하여함주군내 동지들에게 배포하고 구년 이월경에 긔렴시위로 격문을 발행하여 홍지흔(洪智欣)등으로 조직한 산포행동대(撒布行動隊)에게 산포케 하엿스나 산포하지못하고 동년사월이십일일경 홍지흔(洪智欣)에게『메ㅣ데』격문약오백매를주어 함흥부내와 함주군내 각면에 산포 하엿고 동년 오월이십팔일 리근수(李根秀)유영준(柳榮俊)과 회합하고 함흥평야로 성천강(城川江)으로량분하여 강동(江東)은 리근수 강서(江西)는유영준(柳榮俊)으로 각서남부는유영준(柳榮俊) 한홍익(韓弘翼)강히분담활동한결과 삼면에공하여 팔개 적농조(赤農組)반 이개청년반(靑年班)을 조직완성할 긔관지『붉은손』투쟁신문(鬪爭新聞)등 오회나발행하엿다

留置場의姜穆求 再建分子를指導
메이데이에檄文等製作撒布
執拗한再建活動經過

★寫眞說明 右列 上으로부터 李金福 金淸鳳 姜昌淳 李根守 中列 上으로부터 崔根哲 崔元祚 金在瑢 左列 上으로부터 尹珠淸 金世均 金熙敬 劉萩昌 裵順彬 文寶璉

道路、下水道工事費 受益者에一部賦課
最高로半分에서四分을五個年配當
京城府"坪數割條例"發布

새로 개수하는도로와 하수구를고처 혹은그근처에주택을 가진사람으로 그리익을본는 자에게상사비의일부를 부담케하는 경성부의새세금 소위 토지평수할(土地坪數割)은 이번에 총독부당국의 인가를바더 금 이십륙일부터 경성부고시 제일백오십오호 경성부조례제십오호로 발포시행하기로 하얏다 그내용인즉 조선시가지계획령(朝鮮市街地計劃令)에 의한 시가지계획사업으로 집행한것외에는 도로또는광장(廣場)의 신설이나 확장、로면(路面)의개량、하수도의 신설또는 개량등사업으로 하는 데대하야

一、도로、또는광장에잇서서는 그경계선으로부터 도로는 로폭(路幅)의오배、광장은 그경계선에 접한놉원 최대의도로폭원의 오배의지역에 세금을매이고

二、그의개량에잇서서는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이십미돌의

道路 도로 또는 광장의 신설에는 사업비의 삼분지일을 토지 소유자에게 부담식이고 도로또는 광장의 확축(擴築)에는 사업비의 사분지일을 부담식이며 로면개량에는 폭원십엽미돌이하의것은 사업비의 이분의일을 부담식이고 폭원십엽미돌을 초과한것에는 십엽미돌로에대한 사업비의 이분지일 또는 사업비의 삼분지일을 부담식이되 이것을 갑을병(甲乙丙)의 세등급으로 난우어 과세하고

下水道 하수도의신설에 대하야서는 과세액의삼분의일을 수로(水路)에접한 부분의길이(長)에 비하야 등급별로는 아매이며 그납부긔일은 제일긔를 매년륙월십일까지로 하고 제이긔를 십이월이십일로하야 오개년간 징수하는것인바 이것이실시된후에는 부민의부담은 공사비중 만흔것은이분지일 적은것은 사분지일을 부담식히자는데 잇스나 실제부민의부과는 얼마가될른지 알수업게될 모양이다

千歲에남을文化財 百六十點을指定
半島江上에널린名勝古蹟들
保存委員會議에서새로決定

이십삼일에 총독부 제일회의실에서 열리엇든 제이회 고적명승천연긔념물 보존위원회에서는 이번삼회의에서 전조선각지의 고적명승천연긔념물지정후보로 결정한 약일백칠십건중에서 약십건은 보류(保留)하고 약일백륙십건을 보존령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엿다한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서는 다시 고적명승천연긔념물의 보존상 필요한때에는 경작、발굴 기타 이것을 훼손할만한 행위는 일절 금지하게 되엇다한다 그런데 지정된 일백륙십종에 대하야는방금 사회과에서 정리중이므로 수일내로 발표될터이라는데 그중세상에 일홈이 비교적놉흔것만을 우선소개하면 다음과갓다한다

牧丹臺(平壤) 佛國寺(慶州) 蛇龍窟(寧邊) 獨立門(京城) 百祥樓(安州) 東明館(成川) 帶方太守張撫夷墓(鳳山) 帶方時代의土城址(唐土城ㅣ鳳山) 社稷壇(京城) 東廟(京城) 舞鶴樓(安邊) 海印寺藏經板庫(陝川) 通度寺大雄殿(梁山)

運動競技欄

學生籠球第二日 靑學、中央을擊退
降雨로室內코ㅡ트서開戰

全朝鮮各地에서 選拔한學生籠球界의强豪二十一個校로서 空前의盛況裡에열린 本社主催의第十一回全朝鮮學生籠球選手權大會第二日은 二十六日午後二時부터 鐘路靑年會館後庭에서 行할豫定이엿스나 降雨로因하야 同會館室內코ㅡ트에서열린바 이날夕刊마감까지의 戰績은다음과갓다

中學部第二回戰

靑學47 (20:7 / 27:12) 29中央

基督敎靑年會學校對中央高普戰은 同午後二時五分부터 金化泳、李惠逸兩氏審判아래 開始된바 靑學軍『홈·코ㅡ트』에서 始終優勢를보이며 中央을 손쉽게이겻다

全日本中等籠球 光成高普惜敗
(제일三十分間)

全日本中等籠球選手權大會第二日은 二十三日 午前十時부터 文理大、明大、YMCA等 各코ㅡ트에서 열린바 第一回戰에 不戰一勝한 光成高普는 第二回戰에 京都一中을 二十三對十二로 이긴 餘勢로 이날은 第三回戰에서 浦和中學을 다음의스코어로 無難히 이겻고 準準決勝戰에는 長岡中學에게 짤한個差로 惜敗하야 全日本制霸의 꿈은 깨여지고 마럿다

◇第三回戰

光成高普 41 (19—3 / 22—11) 14 浦和中學

◇準準決勝

長岡中學 17 (7—9 / 10—6) 15 光成高普

그리고同大會 第一部(中學)에는 新潟中學과 長岡中學이 決勝戰에對時케되고 第二部(師範)는新潟師範이 第三部(商業)에는 千葉商業이 各各優勝하엿다

殖銀이朝銀을이겨 商銀對遞信은未完

京城實業庭球리ㅡ그第九日은 二十五日午後四時五十分부터 京城運動場코ㅡ트에서 行한바 殖銀이 朝銀을 이기고 商銀對遞信戰은 第三라운에 드러가 日沒로 中止되여 來三十日에 繼續行키로 되엿다

【殖銀】勝		【朝銀】
○(崔永生、李鍾鑽)	4…1	(岩谷、山田)×
○(藤原、神田)	4…2	(鮎川、中川)×
○(嚴龍、高木)	4…0	(加藤、山根)×
×(島本、磯村)	3…4	(庄司、横田)○
○(洪承武、札龍善)	4…0	(池田、福田)×
(第二라운드)		
○(崔永生、李鍾鑽)	4…1	(庄司、横田)×

【商銀】		【遞信】
○(小野、武田)	4…3	(松山、神田)×
○(金時浩、朴奎和)	4…1	(福田、藤田)×
○(坂東、保比)	4…3	(鈴木、金應國)×
×(朴準鐸、洪鍾南)	1…4	(瀬川、元太釗)○
○(洪鍾國、河村)	4…3	(朴寶煒、孫龍星)×

庭球리ㅡ그戰率表
【二十五日現在】

(順位)		(試)	(勝)	(敗)	(率)
1	殖銀	4	4	0	1.000
1	府廳	3	3	0	1.000
2	總府	4	3	1	0.750
3	鐵道	3	2	1	0.666
3	專賣	3	2	1	0.666
4	商銀	4	0	4	—
4	遞信	3	0	3	—
4	朝銀	4	0	4	—

延專校陸上戰績

延專第二回校內陸上競技大會는 二十五日午前八時半부터 同校運動場에서 열리엿든바 從來의記錄을更新한種目도잇서서 큰收穫을거두고 同午後五時頃에 散會하엿는데 이날의戰績은 다음과갓다

【百米】1金灝深 一一秒二 2秦仁鎬 3金寅達【二百米】1金應鎬二五秒四 2鄭三鉉 3秦仁鎬【四百米】1申仁徹五九秒六 2劉承健 3鄭三鉉【八百米】1申仁徹二分一七秒 2柳志玉 3高昌烈【四百米繼走】新舊學生對抗 1舊組四九秒二 2新組四九秒六【千五百米】1吳基福四分三六秒二 2張利鎭 3高昌烈【投砲丸】1金應鎬一二米五 2李辛得 3金潤根【投槍】1姜然一三七米四〇 2李騰得 3高騰振【投圓盤】1黃炳祏二六米二一 2李東濬 3金潤根【棒高跳】1金重得三米 2金夏永 3吳基福【走高跳】1崔殷鈺一米五五 2黃炳祏 3金重達【走廣跳】1金應鎬六米〇九 2李萬傑 3金星煥【三段跳】1金灝深一三米〇六 2金應鎬 3金寵遠【五千米】1吳基福二〇分一七秒 2張利鎭 3李東用

西日本都市野球 京城代表팀出征

來二十八日부터三日間 小倉市到津球場에서열리는 西日本都市選拔野球大會에 出場할 京城代表選手一行은 京城府팀을中心으로 其

咸南中等陸上

【咸興】咸南體育協會主催第三回咸南中等學校對抗陸上競技大會는 二十四日午前九時부터 咸興高普運動場에서 七個校出戰으로 開幕되엿는데 咸興高普軍이 九種目의 最高得點으로 優勝하엿스며 數種目의 新記錄이 續出하야 空前의 盛況을 이루엇든 이날記錄을 更新한種目은 다음과갓다

▲百米=金貫彬(咸高)一一秒五(從來記錄一二秒) ▲二百米=金貫彬二四秒二(從來記錄二四秒九) ▲四百米=金貫彬(咸高)五六秒八(從來記錄五九秒) ▲八百米=李杜環(北農)二分一八秒二(從來記錄二分一八秒五) ▲投砲丸=稻荷(元中)一一米六六(從來一一米三二)

各校得點表

1咸高=九三點二 2永生=八八點六 3元中=六九點 4北靑農業=五十點六 咸農=五點六 6咸商=三二點 7元商=九點

西朝鮮中等蹴球 決勝戰에不祥事

【平壤】平壤體育聯盟主催第五回 西朝鮮中等校蹴球大會 第二日인 二十五日午後四時부터 崇仁商業對崇實의決勝戰은 金龍鎭主審 鐵路局에서 選拔된 十六日午後京城에서 그 一行中에는 李榮敏、崔仲乙、孫鐵俊三君이 選拔되엿다 더이라는데 아래 崇實先攻으로 始作하여처 음은 崇實이 『하프타임』中心하고 꿋꿋을 날리는 大激戰을 演하든니 後半에 드러서 崇仁商業이 猛然優勢로 攻勢를 取하고나가다가 十分에 대날리、킥 으로 『찬스』를 어더 조인한것을 審判이 『풀·인』을 宣言하고 다시 무슨생각을 하엿든지 그것을 取消하자 一點을 先得하고 날뛰든 崇實 側이 大하여 不正審判에 憤起하여 『풀인』으로 認定치 안코면 斷然 棄權할것을 宣言하고 退場하엿는데 主催側은 日沒까지 問題를 解決치못하고 明日로미루웟다

怪!晴天霹靂 市外數處落雷
날이들면 서북풍이 불면서 日氣가冷할터이다

이십륙일 정오경부터 경성지방에는 북한산으로 검은구름이몰려오며 맑은하늘에 별안간 벽력(霹靂)이 이러나며 소낙비가 쏘다지고 서대문 박게는 우박이오며 동대문박 숭인동(崇仁洞)뒤산에와 그동리 륙십이번지 압전주에는 락뢰(落雷)까지 잇섯다 이때시중은날이맑엇는데 종로 네거리를 거니든 사람들까지 놀래엇음은 물론 문밖으로 원족을 갓든어린 녀학생들은어머니를 차지며 울고불고 한참야단을 하엿다 이는 만주방면으로 부터 남하 하는고긔압과조선해협으로부터 북상하는태풍의 영향을 바든저긔압의 충돌로 기류가 혼란해지는 가운데이러난 괴후엿다 그러고 비가개이면서 북풍이불며날이차질터이다

李有善獨唱會
이십칠일밤에

우리악단의총아 리유선(李有善)군의 도미송별독창회(送別獨唱會)는 연희동문회주최로 명이십칠일 오후일곱시반부터 장곡천정 공회당에서 열터이라는데 입장료는 일원、오십전、삼십전(학생)이라한다

關東地方豪雨 各鐵道混亂
東北、中部線等不通

【電通東京電話】관동지방(關東地方)을습격한 호우로 각처에피해가 속출하고잇는데 동북본선(東北本線)고하、율교간(古河、栗橋間)의 리근천(利根川)은 이십오일이래 갑작히증수하야 이십륙일아침에 이르러 리근천철교는 드듸여 위험에빠저 렬차운전이 불능하게되여 동북본선은 전혀 종단되야《따이야》는 대혼란을 이루고잇다

【東京電話聯合】이십사일밤부터 관동(關東) 신월(信越)지방에습래한 호우로인하야 각하천은증수하야 동북신월、상월(上越)등각선은 전부불통하야 동철(東鐵)유사이래로 처음보는 대혼잡을 이루고잇다 이십륙일 오전팔시반 철도성에서 발표한 삼선의 피해는 다음과갓다

▲東北本線 栗橋、古河間 利根川增水로不通

▲信越線 北高崎、群馬、八幡間 群馬、八幡、安中間、磯部、松井田間等 不通되엿스나 復舊의미望이업고

▲上越線 土合、上牧間越後、湯澤越後、中里間도不通

등으로 세선의 따이야그람은대혼란을이루엇다

山梨縣山崩 十六名生埋
八名行方不明

【甲府電話電通】이십륙일 오전일곱시경 산리현 칠보촌(七保村)으로부터 대도(大島)에통하는 무더천(武德川)류역에서 사태가나서 그부근에잇는 민가십삼호를 매몰(埋沒)햇는데 그중 삼호는 전괴(全壞)되고 십호는 반괴되엿는데 이들의 가족십륙명은 사로파뭇첫다 이급

茨城縣에서 卅名沒死
土砂崩壞로

【水戶電話電通】이십사일 아침부터 쏘다진 호우(豪雨)로 인하야 이십오일 오전령시경 자성현다하군일립정(茨城縣多賀郡日立町)의 일립광산(日立鑛山)의 석회산(石灰山)에 잇는 광부막 뒷산의 토사(土砂)가 문허저서 광부막 십구호중 구호삼십팔명의 가족이 흙속에 파뭇첫는데 소방대등이 출동하야 목하 구조작업을 하고잇는중으로 판명된것은 죽은사람삼십일명 경상자이명으로 남어지 다섯사람은 아직 그소재를 찻지못하엿다

松の實

滑川汎濫 死亡者多數

【前橋電話電通】군마현군마군실전경(群馬縣群馬郡箕田町)에서는 이십륙일아침 활천(滑川)의 범람으로인하야 동정대자(大字)에서는 삼십이동이 도괴 흥흐류실되고 다수의사자를 내엿는데 현재(정오)까지 판명된것만도실로 이십구명이나된다

利根川大增水

【千葉電話電通】이십륙일 오전

群馬縣下에는 鐵路까지流失

【前橋電話電通】군마현(群馬縣)하의 이십오일의 폭풍우에 의한 수해는 명치사십삼년이래의 처음보는 피해엿는데 이십륙일은 천후가 겨우 맑어젓스나 각하천(河川)은 의연탁류가 광분하엿고 더욱히 리근천(利根川)류역의 피해는 가장 심대하야 전교(前橋)시의 암신(岩神)부근에 가설한 전교시와 시외와를 련락하는 철근「콩크리ㅣ트」의대철교는 이십륙일 오전여섯시십오분에 드디여 류실되엿다 그리고 이십오일 그 철교를 경계중이엿든 전교경찰서원 금관(金貫)순사는 탁류에 씨끼워 행방불명이되엿다

救濟中兵士 八名이失踪

【前橋電話電通】이십륙일 오전삼시경 고기(高崎)포병 제십오련대의 병사여덟명은 당지 전원지(電源地)근방에서 수해리재민 구호작업에 종사하든중 여덟명이 모다 오천(烏川)의 탁류에 끌려들어가서 행방불명이되엿다

天氣豫報
晴一時曇

九州의東岸、四國及關西地方을 휩쓸든 猛烈한颱風은 日本海로 빠져서저 弱하여지고 새로운颱風은 八丈島의 東海上을 北進하야 今朝는 銚子의東쪽 約三百키로의海上을 北東으로 移動하고잇는데 그勢力은猛烈하다 이때문에 北東岸은 天候가險惡하다 高氣壓은 蒙古로부터 滿洲及朝鮮에퍼저잇다 滿洲는맑고 朝鮮은흐리기쉽고 東部中部는小雨、關西地方은흐리기쉬웁다

昨日最高 二三、八 昨日最低 一六、九 今日正午 一九、七

東京郵便集配人 五千名動搖
遞相에嘆願書提出

【東京電話聯合】동경시내 우편국의 집배인(集配人) 오천명으로서 성립된 동경체신종업원조합(東京遞信從業員組合)에서는성동우편국(城東郵便局)집배인 이등직무(伊藤眞)가 지난 십일에 해고된것을 계기로하야 여러번 절충을 게속하야 왓는데 성의잇는 회답을 밧지못하얏스므로 이십륙일에 각우편국에서 직장대회(職場大會)를열고 복직탄원서를 망월(望月) 체신대신에게 제출키로 하얏는데 당국의태도 여하에 딸아서는 종업원의 한소동이 잇슬가 우려된다

보양、보음 젊어지는약은 가이자가제일이요

사람이 제일로원하는것은 건강하여 야하고 십분일을하는데 근래는 틀튼 한 사람이적고 약한분이만어진 당、신경쇠약이니 양기부족이니 하게되고 생존경쟁이 심하여짐으로 따라 뇌를마히쓰게되고 애를쓰고번 민이만하지고 자연이 원기 가쇠약하여 빨리늙게되고 따라 양기도업고 최후에는신경쇠약이 니폐병이니하고 오래못살고 세상을 버리게된다

【약가】 중중연十원、경중연五원、지방송료는 대금인환은 실전선금은무료(약은회약이오)

림질 대하증엔 구로벨 제일속히듯습니다

一、구로벨의특장 여러해된고질 특히재발한 림질과 대하증이든지 림독성 으로된방광염 고환염(산증) 치골 염 자궁내막염 란소염 라팔관 염 부두협착등에조쿄
二、이약은 다른약과가티 지리하게 오래먹지안코 만성간에 일주일내로 효력을보고
三、고질만성증이라도 림질약치고 위장이 안상하는

매독에는 푸로다ㅡ가제일이요

이세상의 매독이 ... 한것이증명되엿다 그래서이 불완전한점을업새기위하야주사가아니고먹 는약으로도일주일에효험을보이는 매독약푸로다ㅡ(PROTA)를 발명하엿다 여러가지로치료하여도 아니나어고통하는분은곳시험하여 보시요 안심하시고 여마시고쓰시 요. 장담합니다.

【약가】 완고용七원、중증용五원、경증용三원、지방송료선금무료대금인환이 면삼십전 (약은회약)

(五)제일은서양약집 마음에 안맛거나 특효가업거든 약을도로보내시요 청구 하시는대로하여드리겟습니다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前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그전신성당의곱부) 電話光化門三三五八番 振替京城四九五〇番

二十六日(木曜)

◇午後六時 實況中繼(全國中等) 李女沈淸 脚色演出 金雲汀 出演 靑邱兒童劇會
◇同六時二五分 趣味講座(第一日) 가을과古蹟巡禮=平壤과그附近의古蹟 崔南善
◇同七時三〇分 農村講話(二) 蔘類播種 金峰珏
◇同八時 雜歌外 一、時調 二、지름 三、평수심가 四、엮음수심가 五、雜歌 白玉仙 鄭錦紅
◇同八時三〇分 (大)管絃樂— 大阪放送交響樂團 指揮에마누엘·메테르
◇同九時 連續古談 滿朝大監(三) 申鼎言

二十七日(金曜)

◇午後〇時五分 놀량外 一、놀량 二、앞산타령 三、뒷산타령 撞花唆 韓仁洙 柳開東
◇同三時一五分 兒童健康講話(四) 李鍾淑
◇同六時 獨唱 李永淑 피아노件奏 金敬淑
◇同六時二五分 가을과古蹟巡禮(第二日) 扶餘와그附近의古蹟 崔南善
◇同七時三〇分 農村講話(三) 靑根과白菜의貯藏加工 金峰珏
◇同八時 伽倻琴併唱과大笒 一、短歌 江山遊覽 二、唱劇調바타령 伽倻琴並唱 金海仙 大笒 朴鍾基 鼓手 韓成俊
◇同八時三〇分 連續古代劇(第一日) 李雲芳脚色 蓮花紅蓮傳 라디오·푸레이·미팅 演出 朴珍

二十八日(土曜)

◇午後六時 童話 불이난까닭 梁在應
◇同六時二五分 가을과古蹟巡禮(第三日) 慶州와그附近의古蹟 崔南善
◇同七時三〇分 時事解說 「에」問題와英佛의態度 徐椿
◇同八時 朝鮮日報社主催第一回 音樂家新人選拔者의밤
一、빠이오링獨奏와獨唱
(가)레겐데…위니아우스키作曲
(나)쌍·뜨·발레…베트리오作曲
文學準 피아노伴奏 金元福
二、獨唱
(가)苦促樹…슈ー버트作曲
(나)小夜曲…同
高鋼益 피아노伴奏
三、獨唱
(가)오·내사랑…쪼르다니作曲
(나)거다림…하일렌코作曲
李仁範 피아노伴奏 李有得
◇同九時一五分 連續古代劇(第二日) 李雲芳脚色 蓮花紅蓮傳 라디오·푸레이·미팅 演出 朴珍

家庭

복만흘… 미래의가정을위하야 건강한몸으로출가하라

부인병 가진처녀가 의외로만타

「결혼적령기의위생」

결혼할나이가 된녀자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몸의건강에 대한것을 늘주의 해야됩니다 결혼이란것은 정신적으로도 결합되여야 할것이지만 육체적으로도 결합하는것이니 만큼 무엇보다도 육체에 대한 특별한주의를 아니하면 안될것입니다 몸은 건강하나 또 녀자로써의 병을 가진이는 속히의사에게진찰바더

건강한몸이된뒤

에 결혼을 하지안흐면 일생동안 불행하게됩니다 첫재로 결혼전에 처녀가주의할것은 월경에 관한것입니다 녀자는 대개 월경때가되면 다소「히스테리」가 되는데 더구나 월경이 순조롭지못하고 또 허리로부터 아랫배가 아푸다든지 구역이난다든지 면두룽이 나게되면 더한층히스테리가 심해집니다 이런증세는

월경이곤란한것

으로써 대개 자궁(子宮)의 이상이 잇는때문입니다 자궁의이상이 잇다는것은 자궁후굴(子宮後屈)、자궁전굴(子宮前屈)혹은자궁의 발육이 불완전한것、자궁의 외구(外口)가 협착한것、자궁가운데 종기가 생긴것、자궁내막염(子宮內膜炎)과 라팔관염(喇叭管炎)、란소염(卵巢炎)등의병이 잇는까닭인데 이런분들은 모도 월경이곤난한것입니다 또자궁에 이상이 업슬찌라도

정신적월경고난

(精神的月經困難)이잇는분도 잇습니다 이것은 자궁신경(子宮神經)의 과민으로 오는것으로써「히스테리」가 잇는사람에게만 히잇는 증세입니다 어느것이나 첫재로 그원인을 업새버리면 월경곤난의 괴로움도 해소될터입니다 그럼으로 자궁문이 좁은사람은 이것을 넓히고 근종(筋腫)이잇는분은「데아델미ー」라든가「렌토겐」료법이라든가

또는절개수술

(切開手術)을해서 근치를식혀야합니다 그리고 자궁의 위치가 똑바르지못한분은 이것을 정상적으로 즉 제대로 바로잡아야될것입니다

그리고 이자궁후굴、전굴、우굴(右屈)좌굴(左屈)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야되는데 이것을 가정적으로 치료하자면 첫재로 월경이잇슬때

1、뻘래를 하지말것
2、걸레질을말것
3、바느질을 다니지말것
4、려행을 다니지말것
5、아랫배에 힘드는일을 하지말것

이상의것을 주의해야합니다 그리고만일 배가 아플때에는

1、가만히 누어서 쉬일것
2、배를 따뜻하게할것
3、변비(便秘)가 되지안토록 약을 먹을것
4、매운것을먹지말것
5、기름진것을먹지말것

이런것을 특히주의해야 합니다 만일보통부인들도

이러한경우라면

특별히 주의해야겟지만 결혼할처녀들 특히 더주의해서몸에 이런병이잇거든 속히고친뒤에 결혼을해야 행복된가정을이룰수잇슬것입니다

短篇小說 女子의마음 (6)

張德祚 作
安夕影 畫

홍운이 다우정의 게집들을 처음으로 차즌것은 여름도 한고비가꺽긴 팔월하순이엇다。

향화는 지난번창마에 무수한줄기를 새로 내기시작하는 나팔꼿넝쿨을 대스가지로 밧처주고 잇섯다。 비교적 넓은 압뜰은 향화의 세녀자의 정성으로 꼿밧티생기고 동산이 모여지고 포도덩쿨이 넓은 그림자를 일우웟다。

『이리오너라 이리 오너라』

문밧게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니자 안주인은 직감적으로 차자온사람을 알아내엿다。 사내는 프란네루양복에 지른재스빗 색안경을 끼고잇섯다。

『그후 어떠케되엿는지 몹씨궁금햇지만 영감잇는때 오는것도 뭣해서』하며 그는 가지고왓든 과자상자를 내여밀엇다。

『그래 어떠우 더 고생은 하지안헛소』

향화는 수도에 물을빼여 흙무든손을 씻츠며 너무 반가움에 울듯한 표정을지어 사내를 처다 보앗다。

홍운은 게집과 서로마즌 시선을돌려 가지가지 화려한 세간과 옷걸을때 새로칠한 집모양을 살핀다。

『이러케 훌늉헌줄은 몰낫서、참 소원성취 하섯소』 이런말도 해가며。

향화는 욱이를 불너내여 새삼스럽게 인사를식히고 식모에게 점심을 채리게하엿다

영감은 벌서 일주일이넘도록 령남지방에 가잇슴으로 이런조건들이 모다 깁부고 고마웟다

『그날도 몸이 몹씨 쑤시는걸 억지로 바람이나 쏘일녀고 기어나갓드니 그만 고런 실수를다하게되고』

그는 욱이가듬고 들어오는 화채그릇을 바드며

『난 참 밤잠을 못자서 큰일예요』

『흥 이런신세에도 그런일이잇나?』

『그런일이라니、참 괜히 이까짓 살님을 시작햇다는 후회가 얼마나 나는데』

향화는 외롭고 쓸쓸하단 하소연이며 자기의 압날일에 대하여 짜혓든 이약이를 시작하엿스나 사내는 여러가지 방장식과 뒤를 이어 들어오는 섬찬에 정신이 팔닌듯이 귀여겨 듯는상도 싶지안햇다。

『그러케 홍운이야? 그러치만 그런 사람이 떠 나올지도 모르지』

사내가 끗까지 한뜻이 되여주지안흠을 알자 주인은 짜증을내고 말앗다

『암만 돈이 만하도 난 정말 늙은이는 진저리가나요。똑흉챙이 배추장수라도 조흐니 젊은사람이 조와』

『그러커든 빨니 죽어 답나지』

『그리 쉬이 죽을상십지도 안코』

그는 이러케 대답하며 이말이 자기의 진정에서 나오는것임을 발견하고 몸을 떨엇다。

늙은 영감이 실혀저서 젊은 간부와 공모하고 사내를 죽이엇다든 옛날의 한 동무의 이약이가 번개가티 머리에 떠오른다。갓흔 집에서도 제일 손이 만튼 그녀자는 딸을 팔아 먹고사는 어미때문에 어떤 늙은이의 몃재첩으로 뽑히어 갓다 그러나 그때는 임의 T좌(座)의 신배우(新俳優)로 잇는 정부가잇섯다한다。

향화도 눈이깁게가물거리고입모습고흔 그사나희를 잘알고잇섯다。

『그년이 본사내를 죽엿대』하는 풍문이 온근처를 뒤엎든것은 게집이 락적되지 몃칠되지 안흔때엿다。

『그 여자가 바로 이집에잇섯다지』

향화의방에 들른 손님중에도 눈쌀을 찌푸리고 떠는사람이잇섯슬만큼 그소문은 신문에서평장히 떠들든 것이엇다。

『난 어떤때는 참 무서운 생각이 다들어요』

향화는 처음으로 제생각에들아오듯이 홍운의 얼골을 처다보다가

『그래 벌서부터 갈나 설까하는 맘이잇는데』한다。

무슨 깁흔일을 생각하듯이고흔 아미를 찡그리고 안잣든사내도 그의외의말에는

『왜』하고 놀랏다。

『글세 아즉 석달도 못되여이런 생각이날제는 압호로 허구헌날을 어떠케 지나요』하며애원하듯 사내를 처다보는 향화의얼골은 아즉도 젊엇다。

『정 그러면 영감을 떠나지안코도 조흔수가 잇겟지』사내는 색안경 넘으로 혈색이 조와진 게집의 몸을 훌터보앗다

『실혀요 여하튼 실타니까、늙은이 늙은이 더욱이 본여편네잇는 늙은것이란 듯기만해도진저리가 나』

사내는 그날밤 이집안방 게집의 모기장속에서 잣다。

朝鮮日報學藝部主催 家庭婦人『들노리』大會

너무 일만마시고 금세조흔 이철에 하로쯤은 경치조코 공기조흔곳에서 유쾌히 자미잇게 노시도록하십시요。본사 학예부는 여러분을위하야 조혼날을 택해노코 『들노리』준비에밥븝니다 아못조록 이날 들노리에 만히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時日 九月二十九日(日)

아츰아홉시반까지 정거장(京城驛)으로 모이십시요 만약이 시간에 느지시면 미안하지만 가시고 오시기 어렵습니다
갈때 京城驛發午前十時五十分—安養驛着午前十一時二十六分
올때 安養驛發午後五時三十二分—京城驛着午後六時二十分

場所 安養(驛에서步行으로十分)

밤、포도、뱀독숙의 과실이 만히나기로 유명한 안양입니다 들노리할장소는 그득하고、물맑고、경치조흔 잔디밧입니다 정거장에서는 것는대야 불과 십분밧게 안걸립니다。

會費 (每人에八十錢)

(가)회원은 부인에게한합니다。(나)점심은 각기싸가지고 오십시요。(다)어린애들은 되도록 더리고 오지마십시요 부득이 더리고 오시면 할수업스나 보통회비의 반액(즉 왕복四十錢)을 더내셔야 됩니다。

申請期限 (九月二十八日)

선착기한은 구월이십팔일 오정까지 회비를 가지고 본사서무부(庶務部)로 오서서 신입하시고 회원수증을 바다가십시요。한번신입하신뒤에는 이 대회에 참여하시지안흐시라도 회비를 돌려 드리지안습니다。

餘興

힘안들고 자미잇는 여러가지 경기와 밤줍기、일등、이등、삼등 등수에따라 갑나가는 상품이잇고 보배찻기라고해서 『복주머니를 찻는날에는 누구나 놀랄만한것(무엇이라는것은 말슴안드립니다)이 드러잇습니다。

殘本處分大投賣斷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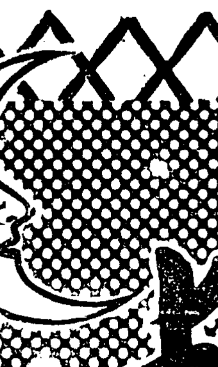
▽左の大辭典の模範辭典十冊合本定價十圓の處今回整理の爲め只の一圓に投賣す(前金注文は荷造送料共一圓四十五錢で送る)代金引替注文は荷造送費廿六錢とハガキで申込次第 荷造送料共一圓四十五錢で送る 本書は最新判クロース金文字箱入美本あり ふれた粗本に非ず (萬一不向の場合は返金す)

◀辭典拾冊合本 タダの金一圓▶

日常百般…法律顧問書讀んだ其の日から即座に役に立つ 難問題・難事件も忽ち解決
本書一冊あれば手紙百般何んでもスラ〳〵と即座に書ける理想的の手紙大辭典なり
今迄の字引の長所に新考案を加へた便利な大辭典 二萬餘の便利重寶な辭典數
日常の凡ゆる新語を一々解釋してあるから…一冊で判る
[illegible]
本書を讀めば自己の歸趨を自覺し向上發展の道を體得す 人生行路の羅針盤なり
一人の氣品才能を評價さるゝ一行の文章からだ 本書あれば如何なる文章も自由自在
青春男女が思ひのまゝを示す戀の手紙集めて本書に充滿

▼合本ですから一冊分價は出來ません
特別景品進呈 無代進呈 模範日記
發賣元 大阪東區[illegible] 振替大阪五六〇一四番 現代出版社

皮膚病花柳病專門
醫學博士 吳元錫
安洞네거리·電車停留場前(電光二一三一番)
入院隨意 診察 自午前九時 至午後八時



品質本位

花王石鹸(화왕비누)

全東洋的石鹸!

四十八年間!美와健康에奉仕하야서 참으로 東洋人의 皮膚를 理解한 純良無比의 비누! 그것이 花王 비누입니다!比할데업는살결의 고흔것을 자랑하는 東洋의婦人들은 그 부드럽고 밋그럽은 皮膚의 젊고 젊음을 保存키爲하야반다시花王비누를 쓰시지안흐면안됩니다

花王비누의 優秀한作用은 如何히 부드러운 살결이라도 거칠지안케하고 때를完全히 씨서바리게하야서 깨끗하게하며 皮膚를整然하게하고 生生하고 미그럽게합니다

純粹度九九·四%
正價一個十錢
東京·花王石鹸株式會社長瀨商會·大阪

三中井創設!! 玆에廿五週年…爾來諸賢의絶對한愛顧에依하야 謝恩의至誠에불타면서…洋服部의特別大奉仕

가을부터 겨울까지 紳士服의記念大特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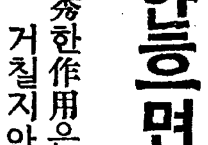
자질이豐富한三中井의 旣成服
品柄 價 裁斷 四拍子完備한 大特價!!

揃三廣背
15円
20円
25円

九月二十日부터 九月三十日까지

京城 三中井 四階洋服部

●模範的頭痛藥! 胃腸을안상한다 ノーシン(노ー신)●



精力回復 元氣百倍 オセロ(오세로)로 非常時突破
¥1.20 ¥2.00 ¥3.50 ¥5.00
各藥店에잇슴

OKEH
—오늘에流行하는— 新民謠 앞강물흘러 李銀波

●記憶力을增進하는 はれやか(하레야가) 能率增進 疲勞恢復●

九月二十四日封切 每日三回 午前十一時 午後二時 七時
◇佛國프란세超特作日本版 椿姬 애달픈사랑、애끗는사랑、눈물의사랑、이것은悲戀의極境篇
◇모노그람特作日本版 싸리ー오닐 그레이ー론차니 主演
M·G·M超特作日本版 W·S·반다이크監督 宿命의鏃 와너빽스터、마나로이 메이·그라크·킥낙홈스 主演
當代의名匠이비저논大미스테리 만도라마의完璧篇興味滿喫!
全鮮第一映畫殿堂 電光九五九 團成社

近郊山岳史話 北岳山 (8)
三淸洞水石과古蹟
湖岩

北岳(白岳)의 기슭에 잇서 水石의 좋키로는 三淸洞을 첫재로 꼽을수밧게 업다 지금으로부터 四百餘年前 成宗때에 樂學軌範을 맨든 有名한 成俔齋은

三淸洞 의 自然을 讚賞하여 갈오되 「漢陽城內에 佳境이 비록 적으나 그中에 놀만한곳은 三淸洞이 第一이 된다」고하엿다 正祖때 考證學者인 成研經齋(海應)도 三淸洞의 水石과 古蹟에對하야 比較的 仔細히 적어슨바 그는 三淸洞入口의 巨岩에 삭인 三淸洞門의 四大字로써 「仙關淸府詩家樂丈」의 筆이라고 하엿다 이로보면 世間에서 이것을 宋尤庵의 手蹟이라함은 잘못이다 이巨岩을 俗稱 屛風바위라하니 白岳의 東北으로 흘러내리는 모든 溪澗이 이 屛風바위압헤 모여드러 水石의 名勝을 일우엇는데 녯날은 이附近을

靈水谷 이라하야 漢陽朝初에 (?)道人이 여기서 修道하엿다하거니와 甲午以前만해도 이三淸洞에 人烟이 아주稀少하야 水石이 매우潔淨하드니 近年에는 이靈境에도 住家가 櫛比하고 보니 그 때문에 玉流가 모도 溷濁한 도랑이로 밧귀게 되어다 成海應當時에 잇든 爾(?)이란 景竹도 거의 오늘날에 와서는 無形이되엇스나 近者新築한 三角齋의비탈아래 그자취가 남아잇슴을볼것이다 三淸洞의 水泳場은녯날 (?)의대신으로 여러사람에게 無窮의快樂을 주지마는 또水泳場 옆호로 열린 三淸橋의 大道는 녯날 松間의 幽僻한小徑에 比하야 通行에 퍽便利하지마는 그만큼 俗化된것만은 事實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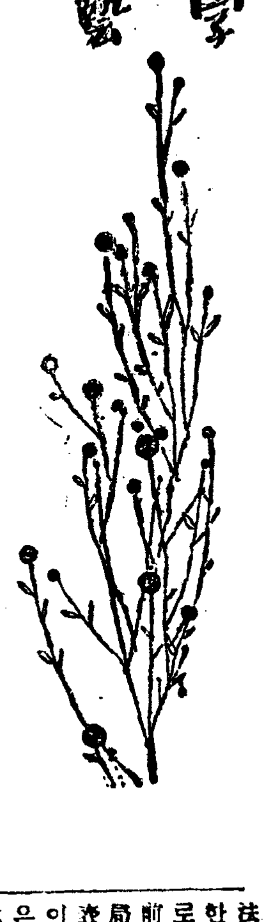
水泳場 이잇고 大道가 잇는 이골작이는 漢陽朝初에 雲水谷이라하야 異僧이 居하든 雲溪庵이 잇섯는데 三淸洞中에도 水石의 美로 가장 일컷든 溪谷이다 三淸洞에는 무엇보담도 淸例한 甘泉이 솟는 兄弟우물(井)이 有名하니 夏月에 三淸洞에 消夏하는 士女들은 누구나 이물의 신세를 지지 안는이가 업다 그러나 이우물의 일홈이 본대는 星祭井이든것이 (?)하야 兄弟井으로 되엿는데 이곳에 七星堂이란 神祠가 잇서 이우물의 물을 길어서 (?)에게 致祭하엿슴으로 星祭井이 名稱이 생긴것이라한다 이

星祭井 에서 數十步를 뒷山으로 올라가면 오늘날도 바위우에 「計天石」이라고 삭인 筆大의 文字를 發見할것인바 그 글시를 쓴 사람의 姓號와 밋 年月까지 삭여잇서 비록八十年內外에 지내지 못하나 旣往부터 잇든刻字가 剝落되어 이가티 다시 삭인것갓다 이 星祭井에서 길을 도리켜 東쪽으로 石澗를 지내서 요새 新築中에잇는 朝鮮式 훌륭한 家屋의뒤로 松林속을돌코 드러가노라면 東關과 西關의 사이에 一大平坦한 高阜가 展開되어 잇슴을 볼것이니 여기는 旣往北村의 射亭으로 저 仁王山기슭의 白虎亭과 並稱하든 雲龍亭의 터니 오늘날도 雲龍亭이라 새인 碑石이 소나무아래 누어잇거니와 이附近은 녯날

三淸殿 이 잇든곳으로 太淸、上淸 및 玉淸의 三(?)을 崇奉한이니 三淸洞이란 이름이 여기서 생겨낫다 그런데 注意할것은 이道教를 (?)하는 官署로는 昭格署가 오늘날(?)해內에 잇든것으로 昭格洞이란 이름이 여기서 생겻다 말하자면 이昭格署로부터 三淸殿에 이르는 北岳기슭의 洞府는 自來道傳과 깁픈關係이 잇는 곳임을 일어야 하겟다 漢陽朝初로 中宗때까지 이三淸洞 막바지 三淸殿에서 春秋로 天祭를 擧行하엿섯다 그러든것이 中宗丁丑에 趙靜菴(名光祖)이 反對하되 諸侯는

天祭를 못하는 법이라하야 三國高麗以來의 舊法을 一朝에 廢止하여 버렷스니 여기서도 儒學이 러업시 朝鮮 그것을 自貶自戕하든 一例를 볼것이다。

學藝



國際法의法理論的基礎
──그學說史的考察에서──
(二)……申基碩

十九世紀의 國際法理論은 國際法否定 또는 國際法의 超國家性의 否定의 理論이엇다「헤겔」學徒가 國家의最高性을 承認하는남어지 國際法의 法規性을 **否**定하엿스며 分析學派의 代表者「오ー스틴」은 法은 主權者의 命令에限定된것이어늘 國際法은 主權者의 命令이안인故로 法이안이고 實證的道德에 不過하다고 하엿스며「에리넥」이 國際法의 法規性은 認定하면서도 그根據를國家自己制限說에둔것은 前述한바오다 國家至上主義、國家主權의 絶對性을 高調하는 學說밋헤서는 國際法은 한갓無力한存在를 버서날수가 업는것이다 果然世界大戰은 國際法으로하여금 一片의 空文化하게하엿든것이다。

그러나 世界大戰의慘禍는 國際聯盟의 組織을 가저오게하고 國際協調의 精神을 回想식혓든것이다 이러한 傾向은國際法理論에 잇서서도 國際主義의擡頭를 보게되엿다。

이國際主義의 新傾向은 大體로세가지로 分類할수잇다 其一은 心理學的、社會學的傾向이요 其二는 論理學的傾向이요 其三은 스코라派的自然法的傾向이다。

第一로 社會學的方法에 重點을두는 學者로서「에루우산렐」의見解를 볼것가트면 國家의主權은 二重의 意味에서 制限되여 決코 絶對的意味를 가질수업는것이다 한便에서는 國家의 主權은 他國家의 存在의 事實自身에依하야 **制**限되는것이며 또한편으로는 엇더한 社會에서든지 그構成分子의 獨立을 完全히 絶對的으로 容認하는것은 事實上不可能하다 萬若 그것이 永續될社會일것가트면 그構成分子가 넘지못할限界가잇서야할것이다 이러한意味에서 國家主權은 二重의制限을 밧지아니하면안된다 絶對的主權의 獨斷에對하야 社會學的考察에 根據해서 主權制限의理論를展開한것이다

또「크랍베」는 法의淵源은 外部的인힘(力)에求하지 아니하고 人間性에內在하는 法律感情 또는法律意識 即 人間의精神生活에求한다 國家意思의 主權性에 對하야 法主權을 主張하고 國家가 國際法의主體가 되는것이 아니라 人間에內在하는 法律感情이 根據가되다고한다「듀기」는 國際法의基礎를 國家意思에두는 代身에 連帶、國際的相互依存또는社會的相互依存이라고 稱하는 社會的事實에두어 法의基礎의存在를證明하려고한다

第二로 從來의 實證主義의經驗法學에서 떠나서 非法律的諸要素를 排除하고 純粹한 法規範의 規範論理的關係를 認識하려는「켈센」等의「빈」學派는 根本規範 또는 本源規範이라는 假說을 定立하야 이것으로써 全法律體系를 規定하려고한다 純粹法學에 잇서서는 다만法規만이 또이러한法規로서 把握되는 法律的關係만이 其他의 非法律的要素와 峻別되는要素로서 法學의 對象이되는것이다

法律現象의 心理學的社會學的考察에反對하며 法律의本質로서의 意思說에峻烈한 批判을하게되다 法의本源으로서 國家意思或은 世界意思를 前提하지마는 此等의意思는 結局 單數 또는複數의 個人意思의 表示에不過한다 이特定의 個人이 構成하는意思가 國家意思或은世界意思로 認定되는것은 根本規範이 此等의行爲에 先行하는까닭이다。이根本規範을 基礎로하야 모든實證的法規가 論理的 法律的으로는 그規範으로부터 因出되는 關聯을 把握하고 그우에 全法律體系의 統一性을 認定하려고한다 根本規範의 定立을如何히하느냐하는點에對하여서는「켈센」은相對的、懷疑的이여서 各探究者의恣意에依하는수밧게업다고한다

「빈」學派의 系統에屬하는「펠드로쓰」는 實證的國際法規의 基礎가되는 根本規範을 國際法基本 또는國際法憲法이라고하야 諸國家의 憲法以上의 法段階에서 모든國際法及國內法의 最終의法律的基礎를 形成한다고한다 이國際法基本은 國家의憲法이 모든國內法의基礎가 되는것과가티 모든國際法의 基礎가되는것이며 나아가서는 國際法規와 國內法規를 서로關聯하야 矛盾업는統一을 構成하기爲하야 必然的으로 前提되는 法規라고한다 따라서 國際法과 國內法의 關係에잇어서 國際法이 優位에 잇하며 國內法은 그効力을 國際法에서 바더서 **基**礎를두는것이다 即國家的國際法觀과는 正反對의 思想이라고 볼수잇다

天空 …… 朴石丁

오날로 언덕우에팔비고누워서
담배한개피여물고 한울만처다
보노니
산뗌이가튼 휘구름을안고 안
고돌다가
東西八方먼곳으로 쪽어버리고
꿋업는蒼空이 외세상이네

×

꿋업는蒼空이 외세상이네
한울은 말업시 처다볼때마다
마음속 憂鬱과 煥急한생각
煙氣를풍은듯이 달어나버리고
百年이며千年이나 살어갈듯한
내마음
오ㅡ한울만처다보고 살어갈가
오ㅡ한울만처다보고 살어갈가

九、十二、於密陽──

用語의問題
午前의詩論技術篇
(6) 金起林

어떤말을쓸가?

말의 要素의分析에 드러가기전에 잠간여기서 먼저 規定해야할것은 詩에서 씨여지는 말은 **어**떠한말이냐 하는問題다 詩는 늘 살어잇는것이다。이말은 거기서 씨여지는말도 亦是 살어잇서야 한다는것을 意味한다。詩를 떠나서 말自體만을 보드라도 그것은 分明히 살어잇는것이다。우리는 古語字典속의말을가지고 이야기하지는안는다。살어잇다고하는말은 늘成長하는것을 前提한다。그것은 그自體의호흡을가지는同時에 여러가지外的衝激과 影響을 바더서 그自體의호흡을 굵고 넓게 맨들면서 흘러가는것이다。詩에잇서서 씨여지는말도 **當**然히이러한 살어잇는 말이아니면 아니된다 다시말하면 그 어느時代고간에 그時代의 詩는 그時代의말로씨여저야한다는말이다。우리는 바로 現代의말로서 써야한다。또 쓸수박게엄다。

왜 그러냐하면 죽은말은이미 우리들의 산思惟나 感情의옷으로서는 잘맛지안는까닭이다 갓과행건을 쓰고신은 蹴球選手의 모양을 상상만해도 우습지안으냐?

現代의 말가운데서도 더군다나 日常의會話속에서 말을집어서쓰고 또 會話體에까지 가까워가려는 **努**力은 우리詩壇에는 亦是 一九三○年直前에서 시작된것으로記憶한다。詩가「아름다운 會話」이므로써 日常의 會話를 美化시킨다고하면 그것은 決코 詩가 自進해서 避할効果는 아닐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問題되여야 하는것은 가튼 現代의말이라도 階級의分布를 따라서 여러가지말의差異가잇다는일이다 그래서 그러한말들처름 그階級이 질머지고잇는 文化의 活力과 疲勞의 濃度를鮮明하게 보여주는것은업다。詩人이 **疲**勞한말을가지고 詩를 써야한다고하면 그以上不幸한일이 어대잇는냐? 英國에잇서서의「엘리옷」의不幸은 이러한곳에도 잇섯고 또「오ー덴」「스펜더ー」「루이쓰」等의幸福은 또 여기도 잇는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詩를 쓰는사람의 大部分은 知識階級이以上 그들은 그들의階級의말에 가장능난하고 敏感할것은 勿論이다。따라서 그들의詩에씨여지는말도亦是 그들의오늘의 말일것은 至極히 自然스러운일이다。富裕한 有閑階級의말은 그들의부억에서 그들의 사랑에서 그들의 宴會場에서 벌서얼마나 기운이빠젓고 힘이업고 **죽**음에 가가워지고 잇는냐?

詩人은 그러한말에는 嘔吐를느낄것이다。더군다나 曾祖父엇나 더올라가서는 李朝初期의말을가지고 詩를 써서 骸骨들과親하려는 詩人을 우리의周圍에서 맛나지안으리라고期必키어렵다는것은 이얼마나 우리詩壇의不幸이냐? 知識階級의말은 勿論 이러한有閑階級의말과는 다르나 그러나 그들이 걸머진文化의疲勞는 그들의말에 深刻하게影響하야 만히活氣를 일허버리고잇다。그래서 오늘의 **詩**에씨여지는말에는 多少의疲勞와 또生氣가 석겨잇슴을 免치못할것이다。그러나 早晩間 詩人은 그들이 求하는말을차저서 街頭로 또는肉體的勞働의입더로 갈것은 피치못할일인것갓다。거기서 오고가는말은 살어서 뛰고잇는 彈力과生氣에 찬말인까닭이다。街頭와 激烈한 肉體的勞働의일터의말에서 새로운文體를 組織한다는것을 이윽고 오늘의詩人乃至 來日의詩人의 즐거운義務일것이다。詩人처럼 生命的인것에 [illegible]惑되는사람은 업슬것이다 寬裕한 **有**閑階級의말은 벌서의 일이고 知識階級의말조차가 얼마나演說하기에 알맛지못하냐? 演說할수잇는말만이산 말일것이다。나는 그러나 여기서詩에잇서서의 雄辯을擁護하는것은 아니다 雄辯이란 虛勢고 또 修辭學이다。그러한 虛張聲勢는 실타。내가말하는 演說은 雄辯이아니라도조타。더듬어도조타。다만直接 心臟에서心臟으로 울려가는 말을가르친것이다。知識階級의말은 보다더「머리」로서 이야기해지고잇고 下層階級의말은 보다더「心臟」으로써말해진다。「히틀러」는 만흔 **獨**逸의 大地主資本家의 勞働者의말을써서 煽動한다。그의演說의魅力이 거기잇다。오늘의詩人이「히틀러」보다도 못하다고 하는것은 얼마나한不名譽냐?

秋燈讀書
家事의餘暇
朴花城

나는 제법正坐하여서 讀書할時間을 가지지못한者이라 언제나 밤十一時 十二時頃 자리우에서야 책을 손에들게됩니다。終日을 서서、안저서、꾸부리고、일만하든몸이니만치 책들기가 무섭게 반드시 눕게됩니다。누어서나마도 한시간쯤은 잘읽는게 普通이오 두시간쯤 精讀하는것은 例外이고 或 三十分을 지나서 책으로 얼굴을 덥허버리는때도 잇습니다。그러기에 생시에 푸러보지못하는 讀書의願을 푸느라고 꿈마다 책과 씨름을 곳잘합니다。記憶해두어야 할곳에는 朱線을긋고 三回讀합니다。그러나 時間이업서 精讀때는 나가튼 主婦되이는 이런方法이라도 取해서 하로이나마 책을 손에서 떼지안는것이 上策이라고 생각합니다。最近에 내가읽은 良書는 여게다가 推薦할自由가업습니다마는 獨逸아·그네쓰女史의 著「女一人大地を行く」라는小說을 우리女性諸氏에게 드리고십습니다。

新國家誕生의氣運
南米에

【「부에노스아이레스」發 聯合郵信】南米의 癌이라고하는「볼리비아」、「파라과이」兩國間의 所謂「그란·차코」紛爭은 先者의「아르젠틴」의「부에노스·아이레스」의會議에依해서 半分間終爲을 告하엿스나 最近紐育「타임스」紙는 紛爭의結果로서 近間「차코」의西北方「볼리비아」及「파라과이」에隣接한 地方에 새로운 獨立國誕生의 氣運이 濃厚해서 目下「부에노스·아이레스」外交界는그形勢를 자못重視하고 잇다고報導한다。

新國家는「볼리비아」에 屬한「베니」及「싼타·크루즈」兩地方으로서 成立해서 獨立이될때는「싼타·크루즈」共和國이라고 命名되리라고한다。그領土의크기는 南米中第七位에 位하며「볼리비아」、「파라과이」、에콰돌、우루과이」보담도 크다고한다。國家誕生의 黑幕이라고 할수잇는나라는紛爭一方의 當事國이엇든「파라과이」로서 新國家를 가짐「볼리비아」와의 사이에 緩衝地帶로 만드려고 한다고한다。

本來「파라과이」國民과 此等兩地方의 住民과의 사이에는 매우强한 民族的傳統的關係가 存在해서 例하면「싼타、크루즈」州와가든것은 十六世紀頃「파라과이」建國의 功勞者로서 알려진「돈프로、데、차베ー쓰」의 손으로植民地로서 建設되여「파라과이」로부터 移住한 西班牙系及「인듸안」系의 住民이 勢力을가지고잇는때문에 現在에 잇서서도 高原地方의「볼리비아」國人과 極히 다른意識感情을 가지고잇다。따라서 獨立의氣運은 非常히强하여서「볼리비아」가 如何히「파라과이」에對해 講和條件을 最終的으로 受諾하드래도 兩州獨立은 早晩間 免치못할運命에 잇다는觀測은「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매우有力化되엿다。

新刊紹介

▲婦選 九月號 東京麴町區麴町一ノ三ノ三 婦選獲得同盟發行 振替東京七〇三八三番 定價十錢

가을의 竪琴

考證行脚
海西의名勝、白川
(2) 方鍾鉉

나도이곳을 처음 차저와서 그成을 바라보고 궁금한을 禁치못하야 溫泉압 큰길로 지나가는 七十에 가까운老人을 한분붓들고 이解答을

要求 하엿든것이다 그러나 다만 그이름을 손쉽게 알수 잇슴뿐으로서 그밧에 이것에 對한傳說이며 이에關한史的事實을 하나도 어들수업는것이 무엇보담도 큰 遺憾이엇고 咨咨한마음을 더욱 急하게할뿐이므로 달리 古蹟이나 勝地를 무른것이 이 山城의 이름을 漢字로 어떠케 表示 하엿는지를 알도록한 그原因을 지어준 起雲亭이란 亭子를 알게 된것이다。溫泉을 바라보고 그停車場을 中心하야 漸次로 市街가發展하여 나아가는 이 白川邑을 거처서 그거리 뒤로 빠저나가면 四五百年에 前後하는듯한 느틔나무가 쭉늘어섯는데 그우에는 白鶴이 오락가락하야 다른데서 엇지못하는 感懷를 자아내이며 古來로 潔白하고 長壽하다고 祝福밧는 이白鶴이 이름이 조와서 그럼인지 이곳 白川을 그 등지로한것도全然 偶然한일갓게는 보이지안는다 느틔나무그밋을通過하야이곳에

名産 인듯한 복숭아果樹園을 左로끼고右로 도라서 山을 向하고 올라가면 가는길을 마주호르는 山川의맑은물이 누구를 즐겨맛는듯이 물소리를 내며 꼬엿다 흘러서 멀리 먼 바다로 가고잇고 밤나무 도토리나무는 오는来客을 위함인지 작고 큰제열매를 뒤수북하게 매즌것이 自然으로부터오는 이들의 本能인가도 생각케한다 얼마아니 올라가면 石쭉川빨에 망원궁바위(或은 마구할머니바위)라고도 하더란가 奇異하게 나라나서 마치 날라가든 독수리가 잠간머믈듯한 異形態는 白川邑을 保護나 하는듯이 깍단안코 내려다보고잇다 아마도 邑內사람에게 무슨迷信이나 던저주엇드니마는 그點은 구타여 알고저하지도안는다 조고마한 淸潔한 집이 自然美를 損傷한듯하게 石壁을 놉히 싸흔 그우에 고요히 터잡앗는데 그엽페 바루 내기차자가는 起雲亭이 기다리고잇는것이다

亭子 는 그리 크지는안흐나 그엽페 妙하게 생긴 돌사이에서 샘이 흐르고잇스니 이샘은 一列로 세 泉源이 잇지마는 그들의생김으로 因하야 上中下로 논호지안흘수업다 上은 조고마한 瀑布로 中은 可히 마실수잇고 下는 可히 物件을 冷却 식힐수 잇스니 이것을 利用하야 여름철에 各方面 사람이 만히 모히게되는것이다 이三泉의물을그집밋흐로 한데모아 흠으게 지어노흔것이 起雲亭에서 左로내려다보게 된 水閣이다 이제이 起雲亭水閣記를 보면아래와갓다 郡銀川北數里雉岳山下沂源泉上有起雲亭水之勝歟其源也南過獒玉洞彈琴潭興書院前洛合水抱流於箕山瀰水東入樓橋川而赴海矣幾有九山一日(觀岩沂源泉)二日(姑岩五皓寨)三日(槽岩獒玉洞)四日(白岩石猪潭)五日(翠岩彈琴潭)六日(鬱爽泉招仁井)七日(黃岩院沙石)八日(潁川橋洗耳浦)九日(石岩會賢巖) 皆有石壁題刻字跡在焉 誌所載……

이와가티 우리는 이 亭子에서 이곳의 景勝을 알수잇는것이며 또

箕山 이라 名稱하는 瓊水라하는 名稱과 우에말한석 잇는 白鶴과 모두 아울러 이곳 선비들이 當時에 가지고잇든 생각도 저으기 짐작할수잇는것이다 그보다도 나는 老人에게 들은바 이山이름「치악」이란것이 漢字로 表示된것을 볼수잇게된것이 무엇보다도 기뿐일이엇다 이水閣記를 보게된것이 나로하여금 이山谷을 分明히 알게하엿고 또 더욱 이곳 邑誌까지도 보게하엿다 이問題를 보고 생각하게한 큰資料가 된것이다。그러면 그根本되는 原因은 마주건너다보이는 山城이 어떠한 史的事實을 가지고잇느냐 하는 이一點을 알고저한데 基本된것이라고하겟다。

黑風 【140】
韓龍雲 作　金熊超 畫

해후(邂逅) 23

이튼날 저녁때에 왕한은 공원으로 산보를 나갓다 때는 이른가을 이엇다 나무닙은 단풍이 들기 시작하얏다 이름모를 가을꼿들은 사이사이 피어서 서늘한 기운과 꼿다운 얼골이 사람으로 하야금 홍취와 회포를 아울너 자어내게 되얏다 왕한은 두손으로 단장의 양쪽끗을 잡어서 어깨우에 가로 메이고 하염업시 가기도 하고 무심히 발을 멈추기도 하면서 이따금 떠러저오는 나무닙을 보기도 하며 어대서 우는지 알수업는 새소리를 듯기도 한다 그리하다가 자기가 서고잇는 마진편의 종녀나무 그늘새이로 어깨를 가지런히하고 한거히 거러오는 두녀자를 보게되얏다 그들은 나무닙을 주어서 입에 대이고 잘강잘강 씹어보기도 하고 손으로 꼿가지를 휘여잡어서 향기를 맛허 보다가 꼿이 떠러질가 념녀하야서 조심스럽게 놋는다 무슨말을 하다가 웃기도 하고 웃다가 다시 말을한다 오른편으로 섯는 녀자는 분명히 창순이엇다

왕한은 창순을 보고서 곳쪼처가든지 불너보랴고 하얏스나 가치가는 녀자가 누구인지 아지못할뿐 아니라 아른체 하는것이 혹은 창순에게 방해가되지아니할까 하는생각으로 창순이가 먼저아른체 하기를 기다리면서모르는체 하고 거름을 옴기엇다

창순은 왕한을 흘깃 보앗다 발을멈추고 다시 보앗다 그리하고 가리가는 녀자를 보고서 무슨말을 하얏다 그녀자는 눈을 드러서 왕한을본다 왕한은 그광경을 못보는체 하면서 더욱 자주보앗다 창순은 그녀자에게 다시 무슨말을 하니까그 녀자는 고개를 끄덕여서 승락하는 의미를 표시한다

『선생님』

하고 부르는 창순은 입설에 미소를 띄운채로 그녀자와 가티 왕한을 향하야 온다

『아! 웬일이서요』

하는 왕한은 창순을보고 것버서 웃는것보다 자기가 보고도 모르는체 한든것이 우수워서、、、섯다

『웬일이라니오 공원에 오는것이 웬일일것이 무어이야요 선생님은 웬일이서요』

하는 창순의말은 애교인듯도하고 항의(抗議)인듯도 하얏다

『여기서 맛나기가 뜻밧기니까 말슴입니다 하여간 잘맛낫습니다 혼저 다니기가 적적하더니 가치 다니서도 관계업슬까요』

『그러면 웨 어적게 공원에 오시겟다고 말슴을 아니하섯서요』

『그게야 공원에 산보오는것을 어제부터 경영한일은 아니겟지오 또 책임이 잇다면 마천가지 입니다 창순씨도 공원에 오시겟다고 말슴한일은 업스니까요』

『그럴까요』

하고 웃는 창순은 다시

『또 가치다니는대 관계가 무슨관계야요 선생님을 모시고 가치 구경하라고 왓는데요』

『아니 동행이 게시니까 말슴입니다』

『예 관계 업습니다 인사소개 하겟습니다 이분은 제동무인 리봉숙(李鳳淑)씨 입니다』

하는 창순은 그녀자를 가리치면서 말한다

『저는 서왕한 입니다』

하는 왕한은 모자를 벗어들고 똑바로 서서 고개를 숙이면서 봉숙을 향하야 말하얏다

『저는 창순씨가 소개하신것과 마천가지로 리봉숙입니다 이러케 뵈오니까 실례가 만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봉숙은 머리를 숙이면서 이러케 말하얏다

『천만에 창순씨의 소개로 이러케 뵈옵게 되는것은 더욱 깃분일입니다』

하는 왕한은 봉숙을 보고 다시 창순을 보앗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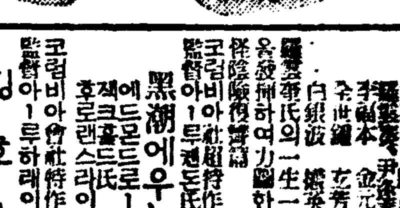
봉숙은 창순에게서 왕한의말을 만히 드럿스므로 말하는동안에 실례되지 아니할만한 정도로 왕한의 얼골과 거동을 살펴보앗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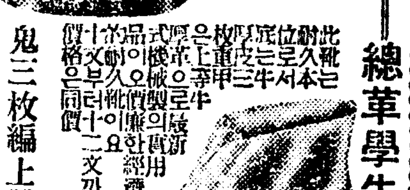
曆
九月廿七日(金) 舊八月健乙酉(大)二十日
丙午·水·牛·收
●祭祀에宜함
▲白露八日(陰八月十一日)
▲秋分二十四日(陰八月二十六日)

定價一圓의萬年筆五本進呈
革靴一足에萬年筆一本式進呈

絶對全責任付不合返金換品自由
大産—大阪—市價의半額
●靴文數를記入하야 葉書로注文하면代金引換으로即送함 ●品質에對하야絶對保險付 ●送料는買主負擔內地三十八錢、滿鮮六十七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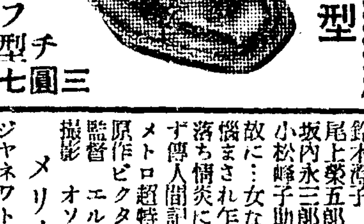
青年訓鍊總革靴◇


上等黑總皮製
一足 三圓五十錢
二個年以上

鬼三枚底—總革學生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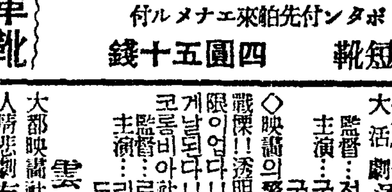
鬼三枚短靴
鬼三枚編上靴
一足 三圓五十錢 一足 三圓九十錢

流行尖端 總革フレンチ型
本品은絶對로機械를使用치안코全部手製品이오上等總皮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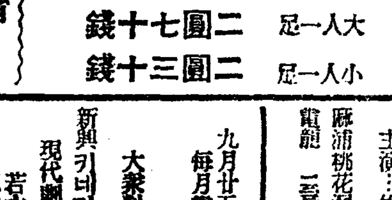
フレンチ型 編上靴 四圓二十錢

フレンチ型短靴 三圓七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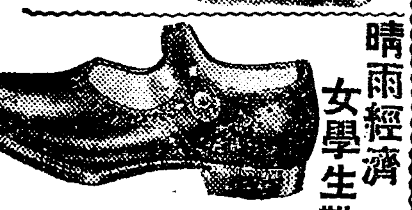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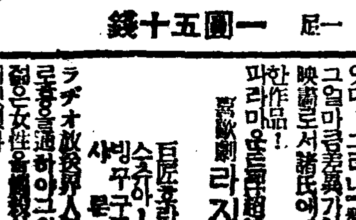
革靴 大爆發的 大景品付
靴一足에定價一圓의萬年筆一本式進呈(最新インキ吸入式、一年以上使用할수잇는萬年筆)

高級紳士 禮服用 總革靴

總上等牛皮底品質保險

ボタン付先舶來エナメル付
短靴 四圓五十錢

中學生專用 指定革靴

一足 三圓五十錢
女學生總革靴

大人一足 二圓七十錢
小人一足 二圓三十錢

晴雨經濟靴 一足金二圓

晴雨經濟 女學生靴

一足 一圓五十錢

合資會社 金城商會販賣部
名古屋市東區千種町(古井坂電停前)
電話東五二二一四(振替名古屋一七六)

優美館 貫鐵洞 電光三九五
彰 그림자 原作脚色監督…春史
黑潮에우는마음 코럼비아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킹 코 ー 스 코럼비아會社特作全發聲大活劇
天下名馬렉스 도로시알돌파이양 主演

中央館 永樂町 電本三五三
九月二十四日부터特別大公開!
透明人間 大活劇 探偵怪奇
お傳地獄 新興キネマ大衆超特作時代劇
メリイ・ウイドウ メトロ超特作日本版

桃花劇場 麻浦桃花洞 電龍一二三
大都映畵社超大作品 人情悲劇 南地의女子 全八卷
雲 全七卷

第一劇場 鍾路四丁目 電光一二三番
九月廿五日낫부터三日間大公開 每月晝夜二回
新興키네마社大衆大作品 現代劇 戀愛ホテル 全拾卷
巨匠호랑코ー다불름氏 監督 라지오는웃는다 全拾卷

咸興共靑再建事件 九十餘名尙今留置

◇檢擧는 一段落을告한양모 廿五日又復五名釋放

【咸興】함흥서에서는 지난 팔월일일 산포된 반전격문(反戰檄文)은 단서로 배후에 극히공고한 공청재건(共靑再建)조직에 암약하여 잇는것을 알고 이래주회에 일백삼십여명의 다수청년을 대량검거하여 엄중취조하든중 지난륙일에 혐의가박약한 삼십륙명은 석방하고 계속취조를하다가 류치장이 좁은관계로 지난 이십삼일 삼십명을 정평서에 이감하엿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이십오일 다시 한모(韓某)외 사명을 석방하엿다는데 검거는 이로서 단락을 지은모양이나 현일 함남도경찰부에서 직접취조를 계속중인데 현재류치인원은 구십여명이라고한다

舘西公立普校 增築期成會組織

【渭原】평북 위원군 관서면(舘西面) 공립보통학교는 아직까지 어학급사년제로서 아동교육상 적지아니 한유감으로생각하여오든중 당지유지들은 학급연장을 목표로 교사증축을 계획한결과 지난 이일에 해면내유지제씨가 모혀 교사증축기성회를 조직하고 각부역원을 선거하얏는바 지난 십일일에 제일회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위원회에서 총예산 오천원을 편성하고 긔부금모집에 활동중이라고한다

役員 會長李河殷 副會長朴宗春 總務金學永 幹事金器行外顧問及贊助員二十二名

一年間酒稅總額 三百餘萬圓突破

大邱稅務監督局管內集計로 飮酒朝鮮의可驚할數字

【大邱】화가나도 술, 깃버도 술, 하면서 우리사회에서 날로애주풍습자가 격증하여가는 현상인바 대구세무감독국 관내의 작년 구월부터 금년 팔월까지 만일개년간의 주정으로소비한것이 칠십오만륙천팔백팔십팔석으로이에 대한 납세금이 삼백삼십칠만 팔천일백구십이원에 달하는 놀랠만한 금액이며 작년도 보다 삼십륙만이천륙백륙십일원이 증가되엿다는바 년년히 증가하는경향을 보이고잇다한다

소비된 종별석수는 다음과갓다

濁酒 六十五萬四千九百廿一石
藥酒 一萬三千九百七十六石
淸酒 三萬六百六十石
燒酒 五萬六千八百五十六石
再製酒 四百七十九石

汽船과衝突 帆船一隻破碎

【新義州】지난 이십삼일 평북 룡천군(龍川郡)선부 리만혁(李滿赫)(二七)과 리만형(李滿亨)(三二)의 형제는 룡암포(龍岩浦)로부터 범선에 곡물 구십석을 싯고 신의주를 향하야 항행하야 오든중 이날 오전다섯시경 삼도랑두(三道浪頭) 랑랑성(娘娘城)압 바다에서 중국상선 광리호(廣利號)가 달리오매 긔적을 자조울니엇스나 때마츰 밀물이 급하야 『치』가 마음대로 돌지안이함으로 엇지할줄을몰나 덤비는중에 광리호는 그만 그범선의 선복과충돌되며 범선은 두조각으로 갈라지고 선부 형제와 실엇든 곡물은 전부 바다속으로 드러가고말엇다 그러나 그선부두명은 마츰 그곳을 향행하든 안동현의 긔선 관강환(關江丸)에 구조되여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지엿다고한다

市場使用料問題로 邑、稅務署와折衷

市民은歸決을注目

【統營】통영읍시장부지(市場敷地)의 대여가격(貸與價格)문제로 인하야 세무서(稅務署)와 읍당국간에 분규가 발생하얏다는데 그내용을 탐문하면 통영읍시장부지 일천륙십평은 종래관유지로서 읍당국에서 무상대여(無償貸與)를 바다가지고 그간에 경비일만원여를 투자하야 시장설비를 하고 시장사용상인에게 매년에 약오천원의 시장사용료를 징수하야 시장관리비 약이천원을 소비하고 그차액 삼천원을 읍당국의 수입으로 하야 오든바 개년오월부터 세무서 독립에따라 세무당국의 방침이 소화십년도부터 전긔시장부지를유상대여하기로 되엿스므로 읍당국에서는 부득히 십년도예산에 시장차지료로 일천원을 계상하야 시장도로부분 오백팔십이평은무상으로 기타 실제시장에 사용되는부분의 유상대여원을 제출하얏든바 세무당국에서 인가치아니하야 여러번 절충하얏스나 원만한 해결을 엇지못하고 읍당국에서 다시최후의일책으로시장중앙관통도로의일부분 삼백삼십삼평만의 무상으로한 동부지의 유가대여원을 제출하얏다는데 과연이것이 용인될는지 일반인사와 지장관계상인들은 리해관계가 불소하므로 그결과 여하를 우려하야 주시중이라한다

同情하십시다!

울어서밤새우는 五十餘名孤兒들

먹다남은밥이나마먹기는하나 옷업고이불업서발병자속출

勤勞學園兒의可矜相

【釜山】부산부남부민정(南富民町)에잇는 부산근로학원(釜山勤勞學園)에는 나이、오륙새되는 어린고아 약 오십여명을 원장 김상만(金尙萬)씨와 원아오륙명이 부내각처에서 먹고남은 밥과 과 헌의복등을 어더다가 그들 고아들을 길우고잇는데 요사이 긔후가 치워서 청바닥 랄루한 의복에다가 이불도업시 치운밤을 새우게되다한다 그래서밤이 되면 어리고 연약한 몸이 치움에 못견되여서 우려서 밤을 새우고 이치로 말미암아 그중 십여명은 병마에 걸이여서 신음하고잇다는데 그들의 비참한 정경은 보는사람으로 눈물을 흘리게하는데 날이점점 치워가는이때에 병마에 걸이여서 신음하는 그들의 장래가 걱정되는바 이제원장인 김상만씨는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園長 金尙萬氏談

밥은 그다지 부족을 늣기지 안습니다마는 긔후가 치워가는데 의복과 이불이 업서서 큰일이올시다 병에걸린고아가 십여명되는것은 사실인바 대개가 치운 감긔인듯합니다 그 터한대책이 잇느냐고요 글새말이요 현상대로 간다면 지도책임상 극력구제에 대하야노력하는 중이올시다마는 하여튼 일반사회의 동정을 바라는바이올시다 운운

眉山明學院에 桑園을寄附 金承彦氏의特志

【谷山】곡산군 하도면 미산리(谷山郡下圖面眉山里)는 유명한 벽지로 아동교육긔관이 업슴을 유감으로생각하든바 삼년전 당지 손병수(孫炳洙)씨외 여러유지들의 열성으로 명학원(明學院)을 창설하야 산촌의 아동들을교육하여오든중 그곳 김승언

鎭興支局主催 刺繡講習盛況

【鎭興】본보진흥지국 주최인 제일회문화자수강습(文化刺繡講習)은 예긔와가티 지난이십일부터 동이십사일까지 진흥례배당에서 개강하게되엿든바 수강생(受講生)이 이십여명이나 되엿슴은안이라 작품성적도 예긔이상의 호성적으로 대성황을 일우엇다고한다

◇寫眞……同受講生一同과作品一部

一金千圓喜捨 禮拜堂建築費 成在恩女史特志

【會寧】회령예수교장로회 예배당은 근년에 교인수가 증가함을 따라 항상 협착함을 늣기여 장노회에서는 약만원예산으로 이층양식으로 짓게하기로 작정한바 그비용은 일반교인의연보를 박게 되엇는데 금번회령읍일동사구번지(一洞四九番地)에 사는 배정긔(裵貞基)씨의 모친 성재은 녀사(成在恩女史)는 자긔가 재세중에 례배당건축하는것을 보고저 금천원을 위선 건축비로 부담하겟다는 패지를 보여왓음으로 교역자와 일반신도들은 그의특지를 감사히 생각함을 마지안는다고한다

◇寫眞…咸在恩女史

義城邑예수敎會 創立記念式 廿五日부터八日間

【義城】경북 의성읍 예수교회(義城邑耶穌敎會)에서는 그창립 이십오주년 긔념식을 이십오일부터 래월이일까지 당교회당내에서 거행키로되여 방금각교역자들은 그준비에 분망중인바 특히 그기념사업으로 부흥회를개최하고 그강사로는 정인과(鄭仁果)목사하며 그교회공로자 포창과그념품라수여식도잇서대성황을 이루리라한다

咸高生秘社事件 公判또無期延期

【咸興】함흥고보학생비사(咸高學生秘社)사건의 김상훈(金湘憲)외 십삼명에 관한 치안유지법 위반사건공판은 약이개월전부터 수차연긔하다가 이십오일 개정키로 결정되엿든바 또다시 재판소의 사정으로 무긔연긔를 하게되여 방청하려온 백여명의 방청인들은 실망하고 돌아갓다한다

李信愛女史特志

【三水】황해도 신천군 초리면 월산리(黃海道信川郡草里面月山里)리신애(李信愛)녀사는 지난 칠월에 삼수군 호인면 령성리(三水郡好仁面嶺城里)방면에 거주하는 화전민(火田民)이 수년간 흉작으로 인하야 생활하는 형편이 처참한지경에 이르럿다는 것을 본보(本報)를 통하야 알고 넘치는 동정심을 금치못하야 현금오십원을 령성리(嶺城里)리돈식(李敦植)씨에게 보내여 극빈자 일백사십일호에 배급하여 끈허저가는 목숨을 연명하엿슴으로 구제금을 바든 사람은 물론 지방인사는 녀사의 동정심에 감탄한다고한다

平南山間三個郡 冷害로凶作未免

重要作物에五割乃至三割減 災民의前途가極憂慮

【平壤】작년의 랭해로 그상처가 봉피도 되지안흔 평남산간군부 양덕(陽德)、녕원(寧遠)맹산(孟山)등 삼군일대에는 신십일이래 지독한 서리(霜)와 수차의 눈(雪)으로 인하여 연초(煙草) 교맥(蕎麥)등은 오할이상 두류(豆類)는삼할이상의 감수를 면키어려워다시금 랭해에 울게 되엿고 닥처오는 겨울을 넘길준비가 업서 그전도가 극히우려되는터이라한다

公州初有의公演 少年少女歌劇 本社支局後援

【公州】긔보=충남공주학원주최 본보공주지국후원의 제일회소년소녀가극연예회는 예정과가티 지난이십일、이십일일량일밤 동학원강당에서 마창관중의 대성황리에 막이열이여 예제의『토기나라사랑(虎)난다!!』『선악의결과』상중가극등장면이 상연되어 관객에게 만흔감상을주고 다시하로 발재공연을 요구함으로 제삼일인 이십이일밤까지 성대히 가극회를맛추엇는데 의연자의 연금액과물품은 다음과가다한다

▲背景幌幕一組 林商店 忠信洋服店 三光洋靴店合同 ▲金三圓式 梁順京 東亞支局池憲正 東洋自動車部 ▲金二圓式 鄭漢明 崔東元氏 金一圓式 金正烈 文弘觀 朴炳觀氏等 ▲花一組 金三園 朝鮮日報公州支局

本報愛讀者─慰安의첫밤

【井邑】긔보=본보정읍지국에서는 금일이십삼、사량일밤에 본보애독자에게 위안을드리고저 영화대회를 당지 주산좌(秋山座)에서 개최하얏는바 당일마흔긔대와 진진한 흥미를 가지고잇든관중들은 돌밀듯이 몰리어 장내는 입추의여지도업시 대만원을일우엇중 예고하엿든 홍길동전(洪吉童傳)을 일반박수갈채리에 상연하고 동영화가끗나자 다음과가튼상품을 당선되분에게 수여가잇섯다

一等一人 掛鍾一個 全金玉 二等二人 朝鮮日報無料購讀參三個月分 吳長順 金沐相 三等 洗面用手巾半打式 金詠信 金斗千 宋在明

◇寫眞……同授賞式光景

德源集成學校 學年延長祝賀

【德源】긔보=덕원군 적전면(赤田面)의 사립집성학교(集成學校)는 금년봄학년연장인가가 된후로 이천여원으로 공사를 이증이든바 이즈음 공사가 완성되여엿슴으로 동교에서는 신원성일을 긔하여 긔렴대운동회를개최키로되여 방금 준비에 분망중이라는바 동교창립이래 처음되는 일이며 일반학부형들도 열성으로 도와 대성황을 예긔한다고한다 올에긔한다고하며 표창바들 공로자는 다음과가다

功勞者 李東殷老 金原 ……在職十五年以上者多數

開城支局後援下에 高宗益氏獨唱會 來十月初旬에開催

【開城】본사주최인 제일회전조선남녀현상음악경연대회에서 이등으로 당선된 개성이나흔 천재적 성악가 고종익(高宗益)씨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오는십월초순에 부내중앙회관에서 본보개성지국후원으로 전긔고씨의 독창회를 개최하리라는데 벌서부터 인긔는 놉다고한다

洪城麴子組合에 不正事實暴露 警察、理事等을取調

【洪城】긔보=홍성연초홍성국자조합에서는 부정사실이 탄로되여 문제가 다단하야 지난달이십구일부터 장부기타를 조사하야 모든문제는 정긔총회에 결의키로하야 조사위원들은 모든조사를 거듭하여 오든바 돌연히 동국자조합장부를 경찰서에서 압수하고 전임리사 리모(李某)와 증인들을 지난이십일부터 소환하여 엄중취조중이라는바 아즉사실은 절대비밀에부침으로 상세한내용사실은 알수업스나 어떠한 부정사실에 대하야 모혐의로 그와가티 취조중인듯하다는데 일반은 문제기문제인마큼 더욱이 금후결과에대하여 어떠케될가하여 주목하고잇다고한다

三千五百圓을喜捨 普通學校增築費로 天安宋麟燮氏壯擧

【天安】천안군 갈전공립보통학교는 소화사년도에 이학급사년제로 설립되엿든바 년래로 취학아동이 격증함을따라 현재의교실로는 도저히 수만흔 취학아동을 수용할수업슴으로 지방유지인사들은 학년연장과 학급증설을갈망하고 이에교사를 증축하기위하야 긔부금을 모집하기에 만흔노력을 해오든중 금번천안군갈전면병천리(葛田面竝川里)에 거주하는 송린섭(宋麟燮)씨가 이소식을듯고 늣긴바잇서 자진하야 삼천오백원이란 거대한돈을 동교증축비로 긔부하엿다한다。 동씨는원적이 수원군향남면관리(水原郡鄕南面官里)라는 조고마한동리의 극히가난한가정에 태어나서 지금으로부터 사십이년전에 생활곤난으로 인하야 전긔 병천리로이사하야 내외가협력하야 조고마한 상점을 차리고 장사에 충실하며 근검저축한결과 오늘에는 상당한 재산을 어게되엿다한다 이에동씨는 구월상십일이 자긔의 회갑임을 긔회하야 재래의풍속을 전폐하고 수연비용을 동교증축에 긔부한것으로 일반사회유지는 동씨의 쾌사를 칭송하야 마지안는다한다

◇寫眞……宋麟燮氏

郡敎育展覽會와 學校書堂聯合運動

【鏡城】십이만군민이 과거이십오년동안 교육적 성과를 일당에 전개하야 이에 총결산을보여주는 경성군교육전람회(鏡城郡敎育展覽會)는 드듸여 천긔명패한 지난이십이일로 경성에서 개최되엿다 군내 각학교단체로는 중초등학교、서당합하야 수백명이 긔차혹은 도보로 속속밀려들어 일반관객과 아울러 경성가론는 인산인해를 일우엇스며 동군교육전람회를 긔회로 군내각학교、서당련합대운동회(學校書堂聯合大運動會)를 결행하게되엿는데 동오전 십시부터 보그라운드에서 중초등학교녀학교 서당을 총망라하야 입장식을 마치고 프경기에 들어갓는데 근천명에 달하는 학도들로 사십이종목의 푸로그람을연출하야 수만관중의 환호성은장내를 뒤번지일듯 하엿는데 이로서 심혈을다한 교육계공전의 성사는 야간 영화까지 마추고 원만이 제일일을 경과하엿는데 실로 경성유사이래 처음보는대성황이엇다고 한다

關西蹴球大會 開催時日變更

【古邑】정주오산체육회(定州五山體育會)에서 주최하는 관서축구대회는 오는이십칠 팔일에개최할예정이엇스나 마침 그날이 일로전쟁긔념일인관계로 부득이오는 이십오、륙일로 일긔를 변경하엿다고한다

一面一校制完成 記念展覽會開催

【延安】황해도 연백군에서는 일면、일교제 예정보다 일년본저 금년도에 완성을보게되엿슴으로 이를 기렴키위하여 일반군당국 주최하에 지난 이십이일부터 삼일간 연백교육품전람회(敎育品展覽會)를 연안공보교에 진열개최하야 상상이외에 대성황을 일우엇다하며 이십사일에는 연백군수 개회사로 개최하고 교육품전람품 당선자에게 상품수여식을 성대하게 행하엿다고한다

地方人事

▲河口政之助氏(鏡城公普校長兼農業實修學校長) 新任人事次本報鏡城支局來訪
▲高宗益氏(全朝鮮男女懸賞音樂競演大會에 當選人事次 本報開城支局來訪
▲李英雨氏(朝鮮總督府稅務署屬) 榮轉人事次 本報大邱支局來訪
▲李楨伯氏(新浦三省醫院醫師)赴榮人事次本報陽化分局來訪
▲昔鳳熙氏(慶尙北道小作官補)赴任人事次大邱支局來訪

馬山 南朝鮮個人庭球戰

▲時日 舊九月九日
▲場所 昌原馬金山溫泉크-트
◇主催 馬金山溫泉體育會
◇後援 朝鮮日報社馬山支局

昆陽 全朝鮮弓道大會

▲時日 陰九月初七、八、九、十日(四日間)
▲場所 昆陽鳳陽亭
◇主催 昆陽鳳陽亭弓道大會
◇後援 朝鮮日報社昆陽分局

大田 大田市民大運動會

▲時日 十月二十日(舊九月二十三日)
▲場所 第二公立普通學校
◇主催 朝鮮日報社大田支局
(詳細追後發表)

新日本의傑作品

그價格은 舶來品의 約半値 맛은 씽거ー미싱과一同

國産 蛇の目미싱을

陸軍省御用 海軍省御用 文部省御推奨 各女學校採用

新日本의傑作品

國産 蛇目미싱은萬國特許品인故로 모든部分品도 世界到處에서隨意로살수잇습니다 特히我社東京、大阪兩工場에서年産額은巨額에達하고從業人員은四百名今也自他가 共認하는 東洋一의미싱製造會社가되여잇습니다

優秀 國産品으로 特히型은 싱거ー미싱과同一하고 價格은 外國品의 約半額이되는것도 國産인때문입니다、지금은 『싸고도튼튼하다』는 評判으로더더욱海外各國으로輸出되는國産미싱의最高位를占하고잇습니다

全鮮進出을爲하야 一郡一店의代理店을 急募함

本社는自他가共認하는東洋一의미싱會社이오그事業은 甚히將來性이만흔것입니다 卽一個의事業을計劃하는경우에提携할것은最良의相對者가아니면안됩니다。 本社는 午前六時事業의先導에서서『明日이잇는會社』로그最適任이니貴下의期待에十二分으로相副할것입을確信하는바입니다。

늘어가는것과 提携하시라

代理 店은本社의州先代表者인故로本社에서는今回全鮮의各地에區域을制定하야代理店을募集함에際하야도事業에身命을다하야長久히提携하시기를約束할수잇는眞摯한분을求합니다。

希望하시는販賣區域

一郡 에一店을標準삼는故로 希望區域을申込하시면 年數上豫定數及特定價格詳細히回答하겟습니다代理店希望者는

京城府 萬稔商會代理店係로

鮮內代理店
忠北忠州郡邑本町 崔翼煥商店
鳳山郡沙里院邑西里一九六 吳得龍商店
延白郡延安面鳳南里二二〇 延安裁縫機械商會
咸南甲山郡惠山邑 鮮興商店
黃海道海州郡邑南本町 福聲商店
晉陽郡晉陽面校月里三三 伊斗煥商店
全北南原郡邑川渠里一七〇 朴琪永商店
洪城郡洪州面五官里六八 朴鏞乙商店
鎭津郡馬山面溫泉里 鑿津裁縫機械商會
平北昌城郡邑南門通 大昌商會

東京・大阪 國産パインミシン株式會社
全鮮總代理店 京城南大門通一丁目九九
發賣元 萬稔商會京城支店 電話光化門一七三五 振替京城一四五二八番
本社 東京市中野區宮園町 支社 東京市丸ノ內昭和ビル 大阪支社 大阪市北區絹笠町大江ビル 各地販賣所 橫濱、神戶、京都、青森、甲府其他

스피로헤ー다는跋扈!!

梅毒이싹날이時期에 只今治療함이第一!!

梅毒、體毒 이自已自身에잇서얼마나무서운것인가。子孫에對하야얼마큼慘害를밋치게하는가。또엇더케하면이런病苦에서脫出할수잇슬가함은임의 論議檢討되고新聞雜誌에도每日과가티揭載되고잇다。그러나理論의時代는지내서實行이焦眉의急務다。千萬言을費하드라도 無力한藥은目的에어긋지療法에만拘泥되고잇스면 何等의利益이업슬뿐안이라、도리혀病毒을體內에 脈入식힘으로 자미스럽지못한人生을보내게되다。조흔療法! 適當한藥! 이것을求하는것이目前에迫到한重大問題이다。

梅毒治療에업서서는안되는 沃素療法

沃素는 觸媒作用으로서 體內酸化를 旺盛히하고 甲狀腺內分泌液의 貧血한部分을形成하야서細胞의活力을 增進식힘으로 第二、第三期等重症梅毒의硬結을軟化하고、病的産物을吸收하야 治療를迅速케한다。

免疫素의增殖도 梅毒治療의要件

白血球內의 免疫素의增殖卽體質의改善은 梅毒과가튼 全身慢性症에는 特히必要함으로 現在化學藥으로 不備한點이만코、何等副作用이업으키지안코、徐徐히效力을나타내는 和漢生藥中에서優秀한藥을認定한다。近來獨逸、佛蘭西、伊太利等醫學先進으로서 自任하고잇는 萬國學者들이和漢劑의生藥에着目하야서 硏究하게된것은 東洋文明을爲하야 甚히愉快한일이안입니가

重症用毒掃丸

沃素療法上容認할수업는最大限의沃素와、體質改善의 貴重生藥과의合劑인重症用毒掃丸은、其殺菌力과 排毒力과의兩作用에잇서서살바산 注射療法과가티 理想的 複合沃素劑로서의名譽을博得하고잇다。

氣分조케 體毒을排泄한다

毒掃丸

독소환

重症用毒掃丸 適應症

初期梅毒 慢性梅毒 潛伏梅毒 先天梅毒 冷毒 小兒胎毒

梅毒性皮膚病 同內臟疾患 同神經痛 同루마치스 가래롯、감창 惡性여드름 動脈硬化 甲狀腺腫

藥價

重症用毒掃丸 二圓、三圓、五圓 十圓、二十圓 三十圓

普通用毒掃丸 五十錢、一圓 二圓、三圓、一圓

小兒用毒掃丸 三十錢、五十錢

(全國有名藥店에잇습니다)

東京市神田區花房町 總本舖 株式會社 山崎帝國堂 振替東京一四六七

穀物大會縱橫觀

目標는어듸잇나 ③

申泰翊

穀物協會聯合會로 그組織을 고치게 된 表面的事情中에는 前回에서 말한바의表面的事情이 업는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큰理由 即 米穀商으로서 團結하야 米穀商組合聯合會란 看板을 들고 나아간다면 不利한處地에 빠질 念慮가 만흔때문으로 結局 그自衛策이 必要함을 늣기게되야 昨年으로부터 穀物協會聯合會를 맨든것이다 그러면 이들의 自衛策은 어떠한點에서 생기엇는지 그內容을 말치안을수가 업다

×

▲첫재로 米穀統制法을 비롯하야 그統制에 關한諸對策이 積極化하야 이것을 조으로잡고잇는米穀商은 威脅을밧는度가 날로 더하여가는것이 事實이다 이것을 다시말하면 政府는 米價의 暴騰暴落을防止하고 그調節策이 漸次로 堅固케됨을 딸하서 米價의 値幅이 어느限界를 너머스지 못하게 되는마큼 米價의 妙味가 적게되야 米穀商으로서도 自然 그의利得을 볼機會가 적게되는結果가 생기는點

▲둘재로는 米穀統制의 前途에 잇서는 自治管理法案이 노혀잇는마큼 米穀商으로서 더욱 不安의念을 안가질수가 업게되어잇는點

▲셋재로 米穀統制의目標中 가장 큰것은 朝鮮米에잇는것이 거의事實이다 即 日本內地로잇서 朝鮮米移入을 어느程度以上으로 抑止케하는 根本方法을 定하여노흔것이 가장 實現한 策으로잡고잇다 그럼으로 朝鮮米 移出의 前途에 는 만흔障礙가 노혀잇는터이다

▲넷재로는 以上과가튼 情勢에잇서서 一面 米穀商들만으로서 自身의 利益을 擁護하라고한다는것은 그힘이 적고 딸하서 그反感이 激甚케될것을 그들은 看破하엿는바 結局 自身의 利益을 爲하라는 自衛策이 必要케되엇든것이다

×

그런데 그들이 自衛策을세움에잇서서 어떠한方法을 取하야만 될것인가 함을 먼저 생각지 안흘수가 업다 即 米穀統制란 大局的問題를 論議하는 이때에 잇서서 局部的인 米穀商側의 不利를 理由로 해가지고 그 大局問題가 到底히 左右못될을 잘알게되고또 는 일즉부터 米穀商組合聯合大會에 對한 非難을 緩和케 함에 잇서는 그 自衛策도 表面的으로 米穀商에 偏重함을 避하는것이 가장 效果的으로 되지 안흘가 하는點에 着眼케 되것이다 그래서 自衛策을 講究하든 方面을 轉하야 米生產者인 農業者와 손을 잡고서 共同步調 即 全朝鮮이란 큰 旗幟를 걸고서 實際에는 自己들의 防禦를 打開하고 또 하여서 그의利益을 擁護하는 結果가 나타나도록 하라는 巧妙한方法을 取키로하엿다

×

이곳에잇서서 안될수 업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農業者란것은 어떠한層을 가리켜서 한말인가 하는點이다 即이것은 米生產者中에 잇서서 가장 小數의 大地主層으로 그例를 들면東拓 不二興業其他의 農場에限하는데 끄친다 그럼으로結局에는 昨年부터 생긴穀物協會聯合會란것은 旣設의 穀物商組合聯合會에다가 새로히 大地主와 農業者를 끌어너흔것이 될뿐이다 그러나 이穀物聯合會의 目的으로되것을 보면 穀物의 生產改良發達、商取引의 圓滑增進、販路의 擴張及 의 「融和提携」라는 美句를 드려노흔바 이것이야말로 米穀商의 意思로 相反되는것임을 發見할수 잇지 안흘가 생각된다 그러고 昨年부터 그 組織을 變하엿다고 하지만 第一回 의이번에 열리어든 第二回의 大會가 모두 穀物商組合大會와 別로 다른바가업시 依然 그全部가 穀物商中心으로 되어잇고 조곰이라도 그들이 米生產者의利益을 圖하는點을 차저 야 차질수업는것이 事實이다 이러때문으로 이번의 大會에서 協議한 議案卄二件其他의 모두米穀商들의 自己本位에서 出發되것임은 다시 疑心할 餘地가업섯다 (續)

朝鮮內政府米拂下 申請量四十六萬石

廿五日鑑色後保證金提出者 ◇…拂下米二倍를超過

政府의 朝鮮內所有朝鮮米 二十萬石拂下에對한 申請은 二十五日 鑑色한뒤 申込保證金을 提出한사람은 京城(鎭南浦를 包含)三十二萬八千圓 釜山四十七萬四千圓 群山三十五萬五千圓(木浦를包含) 合計百十五萬七千圓인데 이것을玄米로換算하면 四十六萬石强으로 그 二倍를 超過케되엇다

朝銀發行高激增

◇…六十二萬圓에서二億圓으로 過去卅二年間趨勢

明治三十五年 第一銀行券發行當時로부터 明治四十二年 現朝鮮銀行券發行以後에 이르는 朝鮮財界의趨勢를 보면 三十五年前의第一銀行發行券當時는 겨우 六十二萬五千餘圓의 發行高이엇다 朝鮮銀行引繼의 明治四十二年十一月에는 一千百八十餘圓으로되고 朝鮮銀行券發行의同年末에는 一千三百四十三萬餘圓에 達하고 그뒤 朝鮮財界의膨脹進展에伴하야 累增하고 다시同行券의對滿洲國幣制通用力附與及 歐洲戰亂後의 好景氣로 續發增大되엇다 그다음에 大正六年 金輸禁止로 因하야 同年末의六千七百卅六萬圓에서 翌年末은一躍하야一億千五百五十二萬圓으로激增하고 다시同八年末에는 一億六千三百六十萬圓을示하엿다 大正九年三月 의 財界反動以來 物價低落及取引縮少의餘波를 바더서 一億二千萬圓內外로減少하고 昭和五年一月 金輸出解禁을 보게되야 通貨緊縮少顯著와 同時에 九千六十萬圓臺로 低落하엿스나 同六年十二月 金輸再禁止와 滿洲事變에刺戟되야 俄然 增進의道程으로 復歸하고 昭和八年末에는 一億四千八百萬圓 同九年은 一億九千二百四十二萬圓의 最高記錄을 나타내이고 다시 同十年末은 一般財界의膨脹에附隨하야 二億圓突破豫想이 有力케되엇다

朝鮮合同 其他諸社 製鐵의第二浦 日鐵 化學工業에잇서서 興南窒素 其他 永安의石炭乾餾 鐵道用炭等이라고한다

朝鮮內石炭 消費生產增

近年工業化顯著

近年 朝鮮의工業化가 顯著함을 따라 朝鮮의 石炭消費量과 生產量은 逐年增加를 보고잇는바 最近 五個年間 石炭 消費量을 들면(以下單位萬噸)

▲昭和六年一四五 ▲同七年一五五 ▲同八年一九三 ▲同九年二三二 ▲同十年二七五(推測)

으로 今年 七月末現在消費高는 百三十七萬噸으로 前年同期 百十二萬噸에 比하야 二十五萬噸의增加를 示하엿다 그리고 七月末現在 需給狀況을보면

▲生產高 八六九、一三九缺 ▲輸入高 三三五、六八八 ▲移入高 四〇〇、一八八 ▲計 一、五九五、七一五 ▲輸出 二二〇、一八三 ▲移出 二一六、二四六 ▲計 四三八、四二九

으로 差引消費高가 百三十六萬六千五百八十六噸이며 以上의主要消費別은 電氣部門에잇서서 西

製鋼原料 共買建價 四十六圓半

【大阪電話聯合】製鋼原料共同購買會에서는 二十五日 次期 十月로부터 十二月渡製鐵、銑

中國 銀流失防止令

徹底的改正方針

【南京二十六日發聯合】財政部는 電車車掌一般住民商人旅行者等分各地의 銀搬出制限令이 從來 매 頹을 明確히하야 携行銀의 量을 決定한것으로 그結果 銀流失防止의 徹底를 期할수업섯든것을 보고 目下 修正法을 起案中으로 不遠 實施키로 決定하엿는데 新法은 制限令全般에 亘하야 修正을加하는同時에 新規定은 船舶人夫 外國人方面에서는 極度로 制限케될것인데 中國人方面에서는 이것을 다만各海關布告의 統一에 不過하다고 하야 立法化를 怪異히 생각하는모양이라고한다

咸南北、江原 鰛漁獲豊盛

一般的潮流順調로

咸南北、江原의 三道는 鰛盛漁期인데 一般的으로 潮流도 順調를뵈하야 機船鰛巾着一隻의 一日漁獲高는 一千八百桶 그價格이三千六百圓에達하며 三道 機船鰛巾着數約四十隻의 一日平均 漁獲高는 六百桶가량으로 一日 合計約五萬圓의 鰛漁獲이잇다 고한다 그밧게 小漁船도 五、六百隻에 達함으로 그漁獲高는 相當한 額에達 한다고한다

朝鮮沿岸交通 八月三萬餘隻

【朝鮮沿岸各燈臺調査】八月中各燈臺附近通過의 船舶總數는 三萬六百九隻으로 前年八月中보다 九千六百十四隻이 激增한바그主要한 燈臺別은 다음과갓다

▲馬養島三、二五一 ▲永達島一、三〇八 ▲加德島二、八七七 ▲角龍島一、〇七二 ▲淸津一、七〇五 ▲巨文島一、〇五三 ▲牡島二、〇五五 ▲者只島九八三 ▲長箸岬一、六八九 ▲卵島九七二 ▲城津一、三五七 漁郞端九〇一

▲中旬分製造煙草賣渡高=專賣局九月中旬 製造煙草賣渡高는 合計百二十三萬六千五百八十二圓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二十一萬八千九百七十二圓의增加인데 이것을 各支局別로보면 京城支局四十五萬三千八百十七圓 全州支局 二十九萬四千八百四十五圓 大邱支局 二十四萬七千五百五十二圓 平壤支局 二十四萬七百七十圓이라고

國際船主會議

豫備會議開催絕望

【東京電話聯合】世界海運合理化를目標로 國際船主會議第二豫備會議는 十月下旬 倫敦에 열릴 예定이든바 二十五日 日本船主協會의入電에 依하면 北米合衆國의不參加가 明瞭、最近 歐洲海運界의活況、會議招集國인 英國

깨솔린値上 不許할方針

經濟的引上不得已

【東京電話聯合】石油業委員會는 二十五日 午後 商工省에서 열엇는데 日本內地當業者側에서 貯油義務延期에對하야 不滿을 表明하고 이에對하야 商相은 外國會社가 六月까지 貯油義務를 履行함을 前提로 對策을 樹立하고 만약外油側이 實行치안흘때는 適切한 方法을 講究할方針이라고 强硬한決意를 表明하야 다시商相은 깨솔린二錢五厘値上主張에對하야 어듸까지 貯油義務에 關連한 値上은 이것을 容認할수업스나 經濟的理由에 依한 値上은 不得已한일이라고 認한다는 旨를 言明하엿스며 딸하서 商工當局에 서는 그 時期에 對하야 貯油義務에對한 國家補償豫算案의 大藏省查定을 기다리거나 或은 그以前에 實行할가 함에對하야 考慮中이든바 事務當局도 即行論을取하고 또 町田商相의 所謂經濟的理由에依한 値上容認의言明으로 보아서 近日中 値上의態度를 밝힐것으로 觀測되다

米運賃交涉

鎭南浦와木浦에서

朝鮮米運賃의 新協定에關하야 協會에서는 阪神六十三圓으로 交涉中이며 또 ㊅도 不遠 正式으로 交涉을 開始할터인데 阪仁標準보다 多少 比較的低價로 協定하라고 考究中이다 그러나 ㊁⑥와 關係도잇서 ㊅의主張은 實現키어렵다고觀測되다

人絹染色工業

統制交涉決裂

朝鮮에 人絹染色工場를가지기가 不可能함을 認識한 日本內地人 絹染色業者는 更히 新義州에서의 人絹의 猛烈한 密輸狀況을 觀察하고 朝鮮向移出에 對하야 補助金을支出하야 朝鮮內當業者와 自由競爭을 行함은 密輸에對하야 補助金을 支出하는結果가되는 實情이 判明되는 同時에 人絹染色工業의 統制一元化 의 不可能한것을 認識한 日本內地當業者는 廿五日 商工獎勵館에서의 朝鮮側當業者와의 最後的協議會에서 統制一元化의困難한것을 承認하고 更히 硏究할 餘地가잇다하야 事實上의決裂이되엇다 이結果 日本內地側이 今後 如何한 對策을 講究할지는 不明이나 朝鮮側으로서는 日本內地와의 對抗上 一層 朝鮮內의 統制를 鞏固히하기爲

뉴욕生糸價 新高價躍進

日本颱風의被害로

【뉴욕二十五日發聯合】二十五日 入電의 橫濱市場은 四十七圓乃至六十三圓의 大幅暴騰을 나타내이고 大引은 八百九十五圓으로 九百圓大關門에 肉薄하엿이에對하야 當地의 動搖는 日本의 颱風被害가 電報보다도 顯著히明瞭하다는 解釋을 하게하야 結果需給관계人氣가 顯著히 濃厚케되고 問屋의 多量買에 買埋와 新規買物이 잇서 그市勢가奔騰하야 新高價를 躍進하고 그뒤市中은 閑散으로 多少軟退하엿는데 止價는 前日보다 二仙半乃至 三、四仙高로 實買高는 二千九百四十俵이엇다고한다

東拓米作 百四十萬圓

東拓朝鮮支社 八月末現在 米資融資額은 低利資金五十五萬六千圓 自己資金八十四萬七千圓 合計百四十萬三千圓으로 前月末의 三百四十九萬三千圓에比하야 百九萬圓의 減額이엇는데 九月以來의 報告는 各支店이 모두未着이나 減率이 매우 急激하야 結局九月末 現在에는 半減할것 으로 觀測되다

米日爲替反落

【뉴욕二十五日發聯合】廿五日의 米日爲替는 前日에 比較하면 賣二十八弗八十四仙으로 七仙低 買二十八弗八十二仙으로 七仙低

▲東京爲替(二十六日) 對米 賣二十八弗十六分十三 買二十八弗十六分十五 對英 賣一志二片十六分一 買一志二片三十二分一

▲大阪爲替(二十六日) 對米 賣二十八弗四分三 買二十八弗八分七 對英 賣一志二片十六分一 買一志二片三十二分三

今日財界 (卄六日)

◆米 (單位錢)

仁川正米	[illegible]	[illegible]
大阪正米	[illegible]	[illegible]
◎三等米	[illegible]	[illegible]
正租(仁川改良)	[illegible]	[illegible]
◆市中金融 一斤價	[illegible]	[illegible]

◆株 (單位錢)

東新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고무現	[illegible]	[illegible]

日本의好影響 實効如何重視

最近의 株式은 伊「에」紛爭 擴大로 因한 歐洲大戰當時의經濟活動을 꿈꾸고 活躍을 示하고 서 이에 備코저 產業界總動員의 準備行爲를 示하야섯는데結果 然그만한 價値가 잇섯든가? 너무 氣分에 뛰지안엇는가? 各國軍備膨脹과 軍事的緊張을 加重케하야 一面一般產業에의經濟的 集中이 妨害되고 自然日本의 立場을 조케하리라는 것을생각한때문인데 歐洲全土를破壞할과가튼 戰雲은 지금 想像할수업고 軍事費濫費로 伊太利의 疲弊、歐洲各國의 經濟的窮極을 前提로한 日本株式의 活躍은 神經過敏이라 아니할수업다.

依然 外電一本에 依存하야 人氣的으로 波瀾이 거듭될지모르나 株式市場이 產業總動員準備로서의 市勢는 이미 지난 觀이업지안코 또 國內的으로도 生產高、米價高、財政膨 諸材料도 이미 市勢에 出盡되觀이 잇슨즉 今後는 이總動員的準備가 어듸까지 實質的效果를與케되느냐가 重視된다는 말이엇다。

穩健한觀測

堅實上市勢로打診

東新이 五月一日의 東京短期 百五十六圓十錢의 高價를 拔하기까지는 가을市勢로서 잇서야 할 것으로서 當然 踏上이라 할수 잇는것이오 그以上은 戰爭氣分에 依한것으로 一氣로 今月十九日에 百六十四圓六十錢에 까지 치닷고 一氣로 反落한波瀾市勢가 二十一日 百五十五圓九十錢에까지 떠러지고나서 百六十圓 近處까지 다시 머리를들더니 今前場은 百五十七、八圓臺에서 浮動이엇다。그런즉 戰爭이 안된다드래도 失望的大反落은 업슬것이다。前途를 卜한다면 世界的軍需時代到來로 軍需品 重工業株中心의 系市場가 期待되는터로 此際에서 安定하야 多少의 玉整理를 하면 漸次市勢를 取케될 것인데 이에 注意할것은 지금까지는 氣分市勢에서 戰爭을 하지 안흘지 戰爭이엇서도 伊「에」에 局限되고 또 短期戰爭이라면 漠然에 立脚한 實方이 나와서 市勢를 引繼게할것이오 地味한 上市勢가 잇스리라는 觀測이 豫想實한 商狀으로 打診하는 모樣이라한다。

株式 外電混沌 浮動

商況 (卄六日)

前場 先高後低 伊軍이「에」國으로 進入하얏다는 報로 東新八圓三十錢 大新七圓五十錢에高寄이엇스나 眞否未判이오 開戰되엇다는 소리가 업서 反賣物로다시 鈍調商狀이엇스니 即昨後引에 比하야 東新十二錢低인七圓四十錢 大新五十錢高인 六圓九十錢 日產八十錢低인 二圓四十錢에 區區 大引되고 朝新 三十圓五、七十錢間往來、拓新 十二圓二、四十錢間 往來이엇다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產 [illegible] ▲東拓新 [illegible]

後場閑散 後場은 東新六圓九十錢 日產二圓四十錢 朝新三十圓六十錢에凡調寄後 形勢傍觀으로翻寂裡大引

期米 俄然逆轉 暴落

前場暴落 昨後場 阪地三十一圓三十六錢止와 共히 二十九圓三十錢에 場을 止한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二十一圓二十錢인 十六丁反落을 捕하고 二十九圓十錢인 二十丁低로 場을始한後 阪地三節十四錢의小落을 報하자 當地는 金太店을 中心으로한 大賣物이 現出하야 賣로 八圓六十五錢인 五十五丁에떨아 八十五錢까지 小戾한 ○錢으로 ○五錢까지 突返하엿다가 結局 阪地三十一圓丁에止場함을 伴하야 七十八錢에 場을 止하엿다。

後場續落 後場은三十八圓六十九錢에九丁低로始場後 一三節六十一錢、四節五十九錢、五節五十五錢에 續落이고 別鬪가리止場하다。

新颱風又發生

關東冲에接近

九州一帶를 風靡한 颱風은 旣히 逸走하엿스나 그被害가 莫大한모양인데 小笠原北方에잇든 新颱風이 今朝 關東地方 中에 週留하는中으로 그進路는 아즉 未詳하나 그勢力은 七百十八粍로 發達되어잇스며 또新潟縣冲及 北海道西方 又는 樺太南東等地에는 低氣壓이잇서 東北地方은 降雨、關東地方以西는 曇天으로 天氣가 依然不良하다。日本海로 脫走한 颱風의 被害가 九州地方만이 百五十萬石이나 減收되엇슬뿐아니라 其他 地方의 被害도 相當한 모양인데다가 天候는 依然 雨天을 繼續하고 兼하야 新颱風이 또 어떠한 程度의 被害를 加하게될지 實로 日本內地米作은 昨年과 如한 凶作을 告하지안

市場人感

株 伊軍의「에」國內進軍說로 一高이엇다가 다시 밋그러저서 今前場도 依然保合▲聯盟은 和協의 方途가업시되어 最後로 勸告案作成에 移할모양▲엄는 開戰안는다고 强氣들은 원망▲「뭇솔리니」를 서울안저서 짓는대스자 무슨所用▲東新은 株價의價位와 經過로보아 波瀾期에入하얏다보며 戰爭化하드래도 期待材料의 具體化는 投機株에 好感되지안흐리라는 論이擡頭▲설령新高價를 또보인다드래도 百七十圓臺出現은 至難하리라하야 東新第二次活躍을 難望이라는 軟論도不無▲但 이 軟論도 大勢悲觀은 決코아니고 相當한期間과 價幅의反動이 잇서야만 第二次活躍이 잇스리라는 條件附인모양

米 ▲颱風一過와 共히 突進하든 米界의强風도 一息하야 今朝 阪地는 三十三餘丁反落 當地는 六十餘丁의慘落▲今朝 金太店으로부터 現出한 一萬石의 賣物은 日本內地의 某有力側의注文이 라고 山種一派의注文이나 아닐지몰나▲何如間 暴騰을 告한後인만큼 一場反落은 찰아 리 當然하다고 볼수잇스나 그러나 低落을追隨하지는 못할 뜻▲그러고 그동안 손을밧구지못하야 機會를기다리든 地場은 이사품에 戰線을밧군지도 알수업는것▲勿論 本年米作의 不良을窺하고서 實安心하지못할것은事實▲當地는 阪地보다도 三十餘丁이나 더떠러젓스니 阪地가 又一落을告한다 할지라도 當地는 底堅의 形勢로 時日을 費할것을 可知▲何如間 當地二十九圓四十八錢은 本月中의 天井이라 할수잇다。小拘主義가 得意?▲그러나 새로 發生한 颱風이 또 어떠한作戲를 할지 가알랴?何如間 日本內地米作은 凶作을 難免?

實物前場取引

賣買高二百米

▲朝日醸造 [illegible] ▲東洋拓殖 [illegible] ▲大阪商船 [illegible] ▲朝鮮信託 [illegible] ▲商銀 [illegible] ▲朝鮮瓦電新 [illegible] ▲米倉新 [illegible] ▲鮮滿開拓 [illegible]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聯合】金利低頹待望으로 買氣不弱이오 閑靜이엇다

朝取米豆部 十月一日도立會

自今年、前場만

朝取米豆部에서는 十月一日의 始政記念日當日은 前後場共히 休業하얏섯스나 例年當日의 市勢가 新米第一回後想、新甫其他의 關係로 波瀾이 만흠에 鑑하야 今年부터 前場만立會키로 決定하얏다

仕手轉換時代

客側利退와損退

今回 九州地方을 掩襲하여든颱風은 二岐로 分裂하야 日本海로 逸走함에딸아 各地共히 幾分 軟態에傾하자 地場賣買成의 場面이든 當地市場은 阪地三十五丁反落에對하야 六十五丁의慘落을告하엿다 實로 當地는 來客의買賣成과 地場의賣買成으로 一時 阪仁의鞘가 二百丁未滿으로 縮少하기까지 買氣橫逸하엿섯다고 그러한關係로 因하야地場側은 强化하려야 할수업는狀態이든바 今朝 各地小落을 機로하야 金太店을中心으로한 日本內地某有力側의 賣物과 來客側의 利喰賣物이 簇出하야 當地單獨의 暴落을告하자 地場仕手는 不知中 戰線을轉換하는觀이잇다。勿論 本年米作은 颱風降雨 又는 冷氣等으로 凶作을免키가 難한 만큼 萬人이면 萬人이 모다 强豪가하는 悲觀說이 多하다 그렁으로 兩年 豊凶의凶作을 보고서 實安心하기에는 不安이업지안타고市中商談이偏區

化한 이때에 地場側이 買賣線으로 旗幟를밧구게되어잇음으로 此以上의瓦落은 容易치안흘것이나 今後 果如何?

金·白·銀·金 賣 買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壹〇番地(小廣橋側) 電話光化門二五八番 振替京城壹五五四番 代金引換販賣 料先金送 地方注文

朝取取組內容

▲賣方 當限 [illegible] 中限 [illegible] 先限 [illegible]

▲買方 當限 [illegible] 中限 [illegible] 先限 [illegible]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天候恢復과 共히 田中貞의 猛烈賣進과 小口의 嫌氣投로 下押되어다。

▲賣方 田中貞、地場止米側、小口側投

▲買方 地場利喰來客側、朝鮮側

各地正米

京城不變 日本內地 天候恢復으로 定期暴落이나마 依然賣物薄으로 市況이 沈靜裡에 保合인 丸仁 三等三十一圓九十錢 四等三十一圓七十錢 一等白米三十三圓丁

仁川下漲 新米出盛과拂下를目前에두고 今朝는 定期의反落으로 需要가 極히不振이나마 實物落과 當限의强調로 市況은 下遊氣味인 丸仁三等卅一圓九十錢 四等卅一圓七十錢 一等白米三十三圓六十錢

釜山瓦落 目前拂下로需要地의人氣不振인데다가 期米의崩落을곳고 今朝는 一層賣急人氣이오 氣配一氣로 四十錢瓦落이 며 取引高八九二叺이엇다 角ㄱ三等三十一圓二十錢 四等三十一圓八十錢 一等白米 [illegible]

群山慘落 新米出廻 漸次旺盛과 期米의暴落은 勿論 目前拂下等의軟材로 一部所持側의 賣急氣味가濃厚하야 氣配一氣로 一圓十錢慘落인 簑ク三等三十圓九十錢 四等三十圓二十錢 一等白米 [illegible]

大邱軟化 實物拂底로市場 人氣는 一般으로 拂下待이오 今日側은 定期에 追隨하야 十錢軟化인 角ㄱ三等三十一圓二十錢 四等三十一圓六十錢 一等白米 [illegible]

木浦保合 新穀出廻와 定期崩落을곳고도 市場은實物拂底로 市況이保合인 丸木多摩三等三十一圓九十錢 町三等三十一圓四十錢 四等三十圓二十錢 一等白米 [illegible]

南浦不動 定期崩落을곳고도 雙方이 傍觀하야 市場은 休商狀態인 丸ナ龍尾三等卅圓五十錢 四等卅圓卅錢 一等白米十三圓丁

株式 小林取引店 京城明治町一

期米 吉村取引店 本町三

金融 (卄六日)

◆海外經濟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賣入價 [illegible]

米穀 (卄六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卄六日)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京城絹布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치카고期麥 [illegible]

◆錦油冲價 [illegible]

◆錦搾粕冲價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期米 (卄六日)

◆朝取期米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株式 (卄六日)

◆朝取短期 [illegible]

◆賣定代引日步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商品 (卄六日)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